

파우치 “코로나 백신 조기접종 가능” 8



경영위기에도 인재 육성...롯데 '후의 한 수' 13

코스피(9월)	코스닥
▲ 2395.90 (+31.53P)	▲ 874.13 (+7.39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 1188.30 (+2.90원)	▼ 0.919% (-0.004%p)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20兆 조성...원금 보장

文대통령 '1차 뉴딜 회의' 주제  
“한국판 뉴딜에 170兆 투입”  
금융권 자금공급 계획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을 위해 “2025년까지 5년간 정책금융 100조 원, 민간금융 7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4·9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 가지 유형(정책형 뉴딜펀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의 뉴딜펀드 조성 방안과 함께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권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민간이 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감안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한 형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대다수는 영상 연결을 통해 비대면(언택트) 형식으로 참여했다. 뉴시스

율적으로 뉴딜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뉴딜기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국민 참여를 당부했다.

회의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해 한국판 뉴딜 사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특별대출, 보증

등을 통해 약 10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신한, KB, 농협, 하나, 우리 등 5대 금융지주회사는 향후 5년간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사업 및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등을 통해 약 7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목표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뒤 “한국형 뉴딜 사업은 금융산업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을 떠나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뉴딜펀드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한국성장금융, 한국거래소, 삼성액티브자산 운용 등도 한국판 뉴딜 금융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풍력발전 회사 유니스, IT 기업 NHN, 그린뉴딜 관련 국제기구인 UNEP FI가 참석해 뉴딜 수요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융권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유상호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등 9개 금융지주 대표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고, 김경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영상으로 참여했다. 정일환 기자 whan@

##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렸다

대법 “법외노조 처분, 노동3권 침해”  
효력정지 신청 기각...법외노조 유지  
'노동 후진국 오명' 벗는 계기 마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여 만에 합법노조 지위 회복의 길이 열렸다. ▶관련기사 5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

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합법화 14년 만인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했다. 가처분은 1·2심에서 모두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 1·2심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는 이번 판결이 노동 후진국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본질을 비켜간 소극적인 판단이 아쉽다는 대체적인 평가가 나온다. 대형 로펌의 노동사건 전

문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을 앞두고 사법적 판단을 기대했었다”면서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없고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만을 따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합 선고 직후 대법원 3부는 전교조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로 남아 있게 된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의 법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

치를 무효로 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노조 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 노조에 대한 행정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합리적·균형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취임 100일 김종인  
“개헌 적극 협의할 것  
혁신 DNA 심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권력 구조 개편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련기사 6면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온 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아직은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언급이 없어 조심스럽다”면서도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코로나 사태가 다소 수그러들면 개헌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우리도 적극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각제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개헌론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 자리에서도 권력 구조 개편을 전제로 한 개헌에는 논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후퇴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히 심겠다”며 “야당이 무너진다면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나라의 미래도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을 느껴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비대면 위문장식을 맡았다”고 소회를 나타냈다. 이어 “국민의힘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로 국민을 포용해 나가는 정책적인 조력을 많이 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인 약자를 기반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과거에 특정 기득권 세력에 집착했던 정당 이미지를 벗어 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채권단 ‘아시아나 계약 해지’ HDC현산에 금명 통보

파격제안에도 현산 ‘재실사’ 고수  
거래 무산땀 채권단 관리체제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사실상 노딜로 귀결될 전망이다. HDC현산 사업개발이 인수 부담을 낮춰 준다는 채권단의 파격적인 제안에도 “12주간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인수가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하에서 새 인수자를 기다려야 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HDC현산은 전날 이메일을 통해 12주간의 재실사가 필요하

다는 의견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HDC현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달라진 항공업계 상황을 고려해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9면

이동걸 산은 회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정몽규 HDC현산 회장과 만나 1시간가량의 대화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HDC현산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데,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영구채나 전환사채를 자본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은 HDC현산의 인수 부담을 낮춰 주는 차원에서 역제안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정 회장의 인수 의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됐다.

따라서 이번 산은의 역제안을 HDC현산이 재실사로 응대하면서 사실상 인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셈이 됐다. 앞서 여러 번 HDC현산은 재실사를 요구했고, 산은은 재실사는 불가능하다며 노선을 달리 했다.

매각 당사자인 금호산업이 이르면 주중에 계약해지 통보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금호산업은 지난달 HDC현산에 ‘8월 12일이 거래계약 종결일’이라며 계약해지 가능성을 통보한 바 있다. 우선 거래가 최종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체제로 넘어가고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에 2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 문제를 검토하게 된다.

한편 HDC현산 컨소시엄은 지난해 말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구주 30.77%를 3228억 원에 인수하고 2조 177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HDC현산은 계약금으로 2500억 원을 지급했다. 권찬산 기자 jinsan@

# “여성 인재 존중, 금융산업 발전 위한 시대적 요구”

국내외 금융리더 석학들 모여  
금융 산업 지속가능성장 논의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서 열려  
유튜브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물결-다양성과 포용성'을 주제로 8일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에서 축하하는 최운열 전 의원. 이투데이 DB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선거 기간에 내뱉던 메시지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성평등 정책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채용에서 성차별이나, 임금 격차 등 고용시장에서 성차별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들불처럼 확산된 '미투' 이후 일부 성과가 있지만 한계도 뚜렷했다. 이투데이는 금융산업 분야의 고용·노동의 성차별 개선 문제를 올해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콘퍼런스'의 주제로 설정했다.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이투데이가 여성금융인네트워크와 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물결-다양성과 포용성'을 주제로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국내 금융권이 성평등 문화를 확립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산업 종사자와 석학들의 관심 속에 열리게 됐다.

성장을 주도하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신시장에도 녹색금융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조 강연에서 '코로나19 이후 도전과 기회'란 주제로 글로벌 변화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축하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별 임금 격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융권의 성평등 현실 개선을 위한 당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패널 토의에서는 자본시장 개정안을 발의한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좌장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패널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박종복 SC제일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한다.

'여성이사 할당'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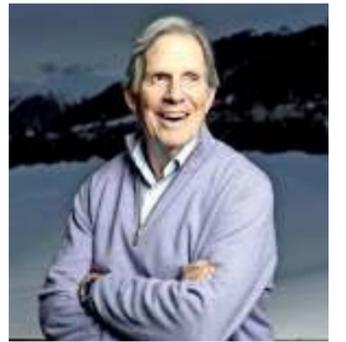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됐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이사회에 여성이사를 최소한 1명 이상 뒀다.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만큼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내 여성이사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49개국 중 30개국에선 할당제나 자발적인 목표를 설정해 여성이사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면 전 세계 경제는 2025년까지 추가적으로 28조 달러 규모의 GDP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금융업계 리더들의 논의를 현장감 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0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콘퍼런스'는 8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2)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예방과 참석자 안전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박은평 기자 pepe@

## “성평등은 비즈니스의 기본”

피터 그라우어 블룸버그 회장  
이투데이 유튜브브서 축하 예정



“성 평등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 비즈니스의 기본이다.”

피터 그라우어(사진) 블룸버그 회장은 8일 이투데이 유튜브 채널에서 자사가 주최하는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피터 그라우어는 성 평등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닌 비즈니스의 기본이라는 주제로 관련 내용을 콘퍼런스 참가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그는 투자자들이 성 평등 수준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성 평등을 이룬 기업일수록 높은 생산성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기업이 성 평등을 중요시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를 설명할 전망이다.

그는 또한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자사가 성 평등을 얼마나 이뤄냈는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성 평등 관련 통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회사는 경영을 더 투명하게 하는 회사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하는 회사들은 자신들의 성 평등 지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려한다는 구체적인 예시도 언급할 계획이다.

피터 그라우어는 성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위로부터의 변화를 꼽는다. 그는 위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가장 효과적이고, 고위직 임원들이 먼저 변화를 시작해야 그 파급 효과가 밑에까지 내려온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그는 고위직 임원들이 성 평등을 위한 변화를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관행을 바꾸려고 할 때 금융산업 전체가 바뀔 것이라고 예

측한다.

피터 그라우어는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성 다양성이나 성 평등 분야에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는다. 반면 한국이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을 포함해 한국 영화와 케이팝 같은 문화 산업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분석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아직 성 다양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 않고, 두드러진 역할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이 금융산업에서도 타 산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더 높은 수준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피터 그라우어는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성 평등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평가한다. 그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여성 등기임원을 최소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한국 사회가 성 평등을 이루는 데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나경연 기자 contest@

## 맑고 깨끗한 우리 땅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서부발전의 <신재생로드맵 3025>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행복에너지 한국서부발전지주



<3년물 0.923%>

# 기대 수익률 확대 못한 정부 “국고채 금리보단 높을 것”

## 뉴딜펀드, 사실상 ‘원금보장’

정부가 3일 발표한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서 신설하겠다고 밝힌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는 사실상 원금 보장형 투자상품이다. 최저 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와 국고채 금리보다 다소 높은 2~3%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과 뉴딜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3대 축으로 설계됐다. 일반 국민은 모든 형태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성상사·다리펀드)이 향후 5년간 7조 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시중은행과 연금기금, 일반 국민(민간공모펀드) 등 민간 매칭으로 13조 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조성된 자(子)펀드 20조 원은 수소충전소 구축과 수소·전기차 개발 등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에 투자된다. 분야별로 디지털뉴딜에선 첨단제조·자동화와 정보통신,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이, 그린뉴딜에선 녹색인증기업과 기후기술 보유기업, 에너지산업 특수분류 포함기업 등이 투자 대상이다.

정책자금 출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형 펀드의 성격상 35%의 재정자

20兆 중 35% 정책자금으로 출자 “민간 자금 위험분담” 선순위 배정 인프라펀드 2억 한도 9% 과세 혜택 애초 언급됐던 ‘3% 수익률’은 빠져

금과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투자위험 분담을 위해 민간자금은 선순위 출자에 배정된다. 또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그린에너지 분야에는 정책자금이,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큰 이차전지에는 민간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투자된다. 또 효과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펀드를 주관한다.

이 펀드는 사실상 원금 보장형에 가깝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총투자금이 1000억 원인데 30% 손실이 난 프로젝트가 있다면, (정책자금 비중이 35%일 때) 남은 700억 원 중 650억 원은 (선순위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50억 원은 재정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손실이 나면 재정이 먼저 차감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부는 민간의 인프라펀드와 함께 뉴딜인프라펀드 재원으로 조성된다. 일반 국민이 뉴딜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2억 원 한도에서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배당소득에 대해선 14%가 과세된다. 뉴딜인프라펀드 조성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자되는 건 투자위험 분담을 위해서다.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는 금융회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만들면,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등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주는 방식이다. 가령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정부는

현장 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중재한다.

관건은 일반 국민이 투자자로 얼마나 참여하느냐다. 애초 언급됐던 ‘3% 수익률’ 등의 표현은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 분리과세는 적용되는 펀드상품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투자유인으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은 위원장은 “투자상품이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수익률이 얼마다, 이자를 얼마 주겠다고 사전에 밝히긴 어렵다”면서

도 “현재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0.8%이고, 국고채 금리가 3년 0.923%, 10년 1.539%인데, 정책형 뉴딜펀드도 (예금 등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지만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책형 뉴딜펀드가 (다른 금융상품보단) 좀 장기이지만,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고 국고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민간금융 ‘K 뉴딜’에 72兆 부담

### “수조 지원” 일주일 만에 ‘수십조 동원령’ 5대 금융지주 ‘수익성 경고등 어찌나...’

#### 코로나 대출·이자 유예 등 부담 가중

금융권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선봉장 역할을 맡았다. 향후 5년간 17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민간 금융기관의 몫이 70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뉴딜펀드까지 고려하면 민간 금융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더 커진다. 이미 혁신금융으로 수십조 원의 지원 방안을 내놓은 데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이자 면제 등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운영 중인 만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금융권이 ‘170조 원 + 알파(α)’ 규모의 금융 공급을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이 약 100조 원, 민간 금융기관이 70조 원을 맡는다. 여기에 20조 원 규모로 정책형 뉴딜펀드도 조성한다. 20조 원 중 민간금융이 13조 원을 충당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등 5대 금융그룹 회장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5대 금융지주 수장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동감 의사를 밝혔다.

지주사별 지원금액은 신한금융이 28조 5000억 원, NH농협금융 13조 8000억 원, KB금융 10조 원, 하나·우리금융이 각 10조 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입한다. 이를 합하면 72조 3000억 원 수준이다. 이미 지원책을 내놓은 금융사들은 추가로 공간을 열고 있다. 농협금융의 경우 13조 8000억 원의 뉴딜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8조 원에 달하는 그린 뉴딜 투자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약 1주일 만에 지원금액을 늘렸다.

5대 금융지주 ‘한국판 뉴딜’ 지원 현황 (단위: 조 원, 5년간 지원금액 기준)



앞에서는 적극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뒤로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사전 공감대 형성 없이 열린 이번 회의는 구체적인 금융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성격이 짙었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많은 지원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얼마 전 5대 금융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친환경 사업 투자 등 혁신금융 지원을 위해 수조 원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4월 민간 금융사들은 10조 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에 8조 원, 증권시장안정펀드에는 8조 원을 출자하기도 했다. 코로나 19 여파로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은 4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6개월 연장해 줬다. 이 조치는 최근 다시 6개월 연장되면서 은행들의 부담이 커진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 너무 많은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며 “빅테크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 자칫 자체 혁신 과제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건강한 일상이 소중한 요즘, 홍삼의 힘을 선물하세요 **바이탈부터 명작수**

그 어느 때보다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은 홍삼 앰플 명작수 - 오늘부터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매일을 지켜주세요. \*인삼 열매는 부원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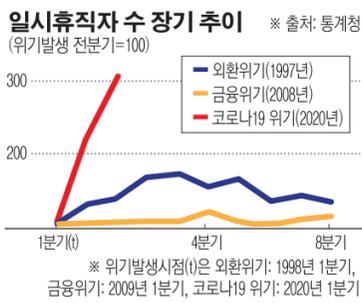
바이탈부터 명작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부터**

# 코로나19 재확산에... 일시휴직자 복직 난항

**여성·서비스업 휴직 많아  
최근 복직률 40% 안팎  
고용·가계소득 악화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불어난 일시휴직자가 향후 고용 및 가계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이들의 복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다.

한국은행은 3일 'BOK 이슈노트, 일시휴직자 현황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일시휴직자는 161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후 7월 들어 69만 명까지 감소했다.

휴직 종료 후 즉각 복귀가 가능한 일시휴직 특성상 그 증가폭은 빠르게 둔화하고

있으나 2018~2019년 평균(40만 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숙박·음식업과 교육, 예술, 스포츠 등 서비스업이 일시휴직자 증가분의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7월중 일시휴직을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시직은 전년 동기 대비 278.1% 급증한 19만1000명을 기록했다. 자영업자도 135.1% 불어난 8만5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용직은 62.3% 증가한 15만4000명에 그쳤다. 증가폭도 임시·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57% 가량을 차지해 남

성보다 많았다. 한은은 지난해 기준 여성이 임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5%에 달하며, 교육(67.1%)과 숙박음식업(62.1%)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과반인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시휴직자 가운데 일부가 실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일시휴직자의 복직이 지연되는 만큼 기업의 신규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17~2019년 일시휴직자 복직률은 42%로 추정되는 가운데, 최근 월평균 복직률은 이 보다 낮은 40% 내외를 오가는 중이다.

한은은 복직률이 과거 평균 수준을 유지

하게 될 경우 단기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이 개선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창현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향후 증가추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숙박업과 스포츠 등 대면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며 "그럴 경우 복직이 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불어난 일시휴직자는 향후 고용회복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시휴직에 따른 임금하락이 가계소득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휴직자 증가는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대영 기자 kodae0@**



**KF-X 시제 1호기 최종조립** 한국형 전투기 KF-X가 최종 조립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된다. 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KF-X 시제기 최종 조립을 시작했다. 2015년 12월 개발에 본격 돌입한 지 약 5년 만이다. 군은 내년 상반기 KF-X 시제 1호기의 최종조립을 마친 뒤 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해 한반도 영공을 수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국민재테크 '뉴딜펀드' 흥행예고 "3% 기대수익률 땀 퇴직연금 참여"

**투자처 못찾은 국민 관심 커  
정부 후순위 커버 위험 적어**

"20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국민에게 안정적 수익을 드리겠다." 당정이 '국민 재테크' 상품이라며 연일 뉴딜펀드를 띄우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펀드 운영 방안 논의를 주재하는 등 직접 챙기면서 유동성은 넘치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국민의 관심이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에 길을 열어줬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 지난 3년간 퇴직연금의 성과가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7년 1.88%, 2018년 1.01%, 2019년 2.25%로 3년 평균은 1.71%에 그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수익률은 마이너스나 마찬가지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세제혜택과 어느정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당정은 앞서 지난달 뉴딜펀드 수익률로 '국채금리+알파(α)' 수준, 안정성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투자 상품의 손실 보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서 안정성은 원금보장 '추구'로 다소 후퇴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예상 수익률에 대한 언급이 빠져 들어갔다.

연세대학교 성태운 경제학 교수는 "정부 보증이 들어있는 펀드 형태일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수익률은 가능할 것"이라며 "하지만 수익이 안 났을 때 재정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성 교수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굳이 정부가 굳이 나서서 할 이유가 없고,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라면 세금이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자금의 형태는 세금에 의한 보조금 지급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거의 30% 가까이 후순위를 커버해 사실상 투자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문제는 기대수익률이 제시된 게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기대수익률을 제시해야 투자자들이 혼란 없이 참여할 수 있고, 디테일들이 나와줘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3% 수준으로 기대수익률이 제시된다면, 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이 들어오는 데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김나은 기자 better68@**

## 'AI 반도체' 상용화 앞당긴다

**민관 7년간 5216억 투입...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를 앞당길 상용화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연 협력 과제 수행 기관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래 반도체 시장을 좌우할 고성능·저전력 반도체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45개 세부 과제에 대한 수행기관 선정이 최근 모두 마무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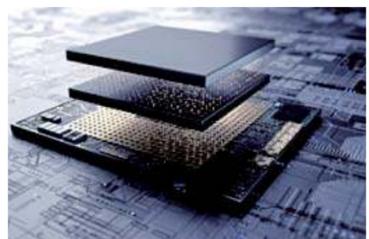
메모리 중심의 불균형적인 산업 구조 극복과 AI 반도체 상용화를 통한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에는 91개 기업과 29개 대학, 8개 연구소가 참여한다. 올해 467억 원을 포함해 향후 7년간 민

관합동으로 5216억 원(국비 4277억 원)을 투입하며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 △미세화 한계 극복 원자단위 공정·장비 기술 △전력 소모 감소·고성능 구현 미래소재 △AI 반도체 설계 기술이 핵심 과제다.

구체적으로 주행 보조 AI 반도체(NPU),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를 돕는 안전운행 지원 칩 등 자율주행차량용 AI 반도체 10개 과제에 올해 93억 원을 지원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시장이 커지는 흡이코노미와 연관된 사물인터넷(IoT) 가전용 AI 반도체 8개 과제에 92억 원을 투입한다.

혈액채취 없이 소아 당뇨를 감지하는 반도체 등 바이오용 시스템반도체 4개 과제에 34억 원, 물류 이송 로봇용 거리 감지 반도체 등 로봇용 시스템 반도체 2개 과제에 2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EUV 시스템반도체에 3차원 적층 기술을 적용한 삼성전자의 사진제공 삼성전자의 이미지.

5G 기반 전자발찌용 반도체와 지하 매설시설의 가스 누출 감지 칩 등 공공용 시스템반도체 3개 과제에는 33억 원을, 공정 미세화(10나노급)를 위한 AI 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18개 과제에는 174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차·IoT·바이오·로봇·공공 등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10나노 이하 공정 장비와 3D 패키징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농식품 수출 '코로나 특수'

**김치 40%·라면 37%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8월까지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0.6%나 감소했지만 농식품 수출은 코로나19 특수를 맞아 김치·라면 등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선전하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말 누계 기준(잠정)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한 48억 4567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별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김치 수출이 크게 늘어 전년동기 대비 40.3% 증가한 98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발효 식품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해외 연구진이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낮은 이유로 배추김치를 지목한 것도 주요했다. 아

울러 비건 김치 등 새로운 수요층을 적극 공략한 것도 효과를 봤다.

김치는 일본 4900만 달러(29.3%), 미국 1600만 달러(69.1%), 호주 400만 달러(76.4%) 순으로 많이 수출했다.

라면은 코로나19로 장기보관 및 가정 내 간편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해 전년동기 대비 36.7% 증가한 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라면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8.4%에 비중을 차지해 올해도 수출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스류·쌀가공식품의 성장도 눈에 띄는데 가정에서 요리에 활용되는 장류(고추장 등)의 소비 증가, 즉석밥과 떡볶이의 인기가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고추장 수출액은 3300만 달러(35.6%)로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수출을 많이 했다. 쌀가공 식품도 8500만 달러(21.7%)를 수출했고 미국, 중국, 홍콩 순으로 수출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내년 국민참여 예산 63개 사업, 1199억 반영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와 비교해 사업 수는 25개, 예산 규모는 142억 원 늘었다.

사업별로 생활안전·환경 개선,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29개(400억 원)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하는 사업이 17개(201억 원), 창업 지원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17개(598억 원)다.

주요 사업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숲을 조성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에 50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같은 비율로 지방비가 매칭된다. 이동형 소각시설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농어촌지

역의 폐기물 노천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우선 내년에는 국비 1억 원이 반영됐다.

소년원에는 기간제 교원인력이 운영된다. 소년원학교 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정신질환 또는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산은 특수교육 기간제 교사 10명의 6개월간 인건비 1억 8000만 원이 반영됐다.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제안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김종인 위원장 “안철수와의 연대, 언급할 필요 없다”

## ‘취임 100일’ 간담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보궐선거와 대선. 이 두 가지 관문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내야 해야 한다.” (박수영 의원)

“국민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김웅 의원)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새 이름)이 새롭게 탄생한 가운데,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김종인(사진) 비상대책위원장에 기대하는 당내 초선 의원들의 염원이었다. 초선 의원 상당수가 우선순위로 꼽은 의제는 ‘보궐선거·대선·공천’이었다.

박수영 의원은 “객관적 판단하에 내년 보궐선거, 내후년 대선에서 모두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면서 “과거 구태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부산과 서

“국민에게 사랑·신뢰받으면 당 내부서 대선 후보 나와”

초선들 “100일 성과 긍정적

서울·부산시장 보선 다 이겨야 사욕 버려야 젊은 의원 지지

울 모두에서 이겨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웅 의원 역시 “정권을 잡는 데 앞서 국가를 일으켜 세우고, 국민을 사분오열이 아닌 단합으로 이끌고 이성적 국민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를 위해 마지막까지 희생해주시고, 당 차원에서도 사욕을 버린다면 젊은 의원들도 다 따라갈 것”이라고 청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도 이를 공감하며 이날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100일 기자회견 담회에서 “우리 당이 국민에게 사랑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부에서 적격인 대통령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외부에서도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며 흡수가 돼,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외부에서도 우리 당에 관심이 있다면 흡수돼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당, 안철수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관해서는 “가급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적절하며, 그러한 인물이 충분히 당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1년 보궐 선거를 경험했듯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장 잘못된 건 사법부 장악 등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초선 의원들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당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영 의원은 “우리 전체를 돌아보고 앞으로 국민을 향해 나아가자는 말씀처럼 당

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으면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국민의힘을 모아 위기에 빠진 나라를 정상화하는데 중심 역할을 계속해줄 것을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 외에도 유경준 의원은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담론도 선제적으로 잘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으며, 최춘식 의원은 “명확히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비대위가 끝날 때까지 소임이고 그렇게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선 의원들이 평가한 김 위원장의 지난 100일은 긍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당 안정화 △이슈선점 △지지율 반등 등을 성과로 꼽았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박준상 기자 joooon@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 국회, 코로나 또 감염 ‘셋다운’

### 이종배 접촉 이낙연도 자택 대기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 근무하는 당직자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회는 곧장 본관과 소통관 등 일부 구역 폐쇄하고 모든 일정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다시 ‘셋다운’ 됐다.

3일 재난대책본부는 “오후 4시부터 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국회 본관 내에서의 모든 회의 및 간담회는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에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도 취소됐다.

이는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는 국회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씨는 전날 오전까지 국회에서 근무한 후 오후 영등포 보건소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

다. 직원 A씨의 확진 판정에 따라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오후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위원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이에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 안전상황실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낙연 대표와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비서실장이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회동했다. 이들은 이종배 정책위의장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저녁에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기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3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근무하는 행정비서가 코로나 확진을 받은 가운데 방호요원들이 분청 2층을 폐쇄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김태년 “내년 556조 예산안 집행엔 3%대 경제성장 가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5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정 정책의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게 되면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후에 일각에서 국가채무와 관련해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말했지만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교적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9월호 발매

COVERSTORY 브라보! 음악에 차어스!

PART1. 음악의 가치 음악은 늙지 않는다  
PART2. 종장년 음악문화 서베이 헤드라인은 변했어도 스프라한 감성은 그대로  
PART3. 추억 속 음악 찾기 숫자로 알아보는 추억의 열선들  
PART4. 음악에 반하다 신의 울조림 선율로 듣는다  
PART5. 노래가 삶을 부를 때 인생 오선지 위 음표처럼 박힌 그때 그 노래  
PART6. 음악 감상실을 가다 LP 한 장 들고 떠나는 감상여행

더불어 숲 내 마음에 구불 걷히면 부처가 보인다

박원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나만의 낙원을 꿈꾸었다, 그러나...  
안녕, 시골아, 드디어 내가 너에게 왔노래  
그때엔 그렇게 호호한 인사말을 울음 거품이 없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다 귀촌한 김영희(54) 씨. 그의 귀는 얼은 귀였나? 그는 “농지대 접하며 가져 쓸 수 있으니 몸만 오라는 지인의 당혹스러운 권유를 받고 설레어 달려 내려간 참이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 상황이 영 달랐다.”

김혜영의 느린 여행 버려진 시골집의 재탄생 ‘규암리자은길’  
백재고도 부여에는 백제의 찬란한 문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한편으로는 백제 유적지 일고는 이렇다 할 관광 콘텐츠가 없어 아쉬웠다. 2년 전 규암면 규암리 차은리에 ‘자은길 프로젝트’는 마을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 첫 단추가 독립서점 ‘책방서점’이었다. 호기심을 얻고 찾아간 시골 책방은 꽤 신선했다. 지금 그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 다시 가겠다.

생생 부동산 현장 비규제지역에 가려진 ‘일파’ 호재들  
6·17 부동산 대책이 호재로 작용한 지역이 있다. 부동산 규제를 피해 아직 안전하다. 투자할 만하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수요가 몰린 김포항암신도시다. 그렇다면 다른 호재는 없는 걸까. 김포항암신도시의 잠재된 미래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왔다.

엄마가 엄마에게 면역력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육류와 버섯, 녹황색 채소 레시피

투자 고수와 농사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지원센터 선임연구원 늦추면 더 받는 ‘볼륨한’ 국민연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잠시<sup>詩</sup>

# 마스크

거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모두가 한 뼘만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서로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한 뼘짜리 공간 안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美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

# 파우치 “백신 조기접종 가능”… 美 증시 ‘환호’



“임상시험 압도적 성공엔 상용화”  
다우지수·S&P 나란히 신고가 행진  
“대선 앞두고 무리한 시도” 우려도

모든 불확실성의 해법은 역시 ‘백신’이었다. 2일(현지시간) 미국 내 감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사진)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의 한 마디에 지지부진하던 미국 증시가 뛰어올랐다. 심지어 사상 최고치로 뛰며 시장의 환호를 자아냈다.

2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59% 오른 2만9100.50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4% 상승한 3580.84에, 나스닥지수는 0.98% 오른 1만2056.44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거의 6개월 만에 2만9000선을 회복, 사상 최고치까지 불과 450포인트를 남겨뒀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는 나란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장 초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8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관망세 때문에 주요 지수들은 방향성을 잃은 모습이었다. 그러다가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온 데다 미국 정부와 의회 간 추가 부양책 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름세로 방향을 틀었다. 결정적인 건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접종 가능성을 언급한 ‘파우치의 입’이었다.

파우치 소장은 전날 비영리 의료뉴스 매체 KH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백신 이용 가능 시점이 예상보

다 몇 주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한 제약회사는 모더나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다. 이들은 각각 개발한 백신 후보 물질을 두고 미국 내에서 3만 명의 지원자를 받아 최종 단계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3상 임상시험 결과는 연말에나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파우치 소장은 “임상시험의 중간 결과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면 ‘데이터-안전모니터링위원회(DSMB)’가 시험을 몇 주 앞당겨 종료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험을 조기 종료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CNN은 “파우치 소장의 발언은 백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며 조기 백신 이용에 대한 안도감을 줬다고 분석했다.

또 파우치 소장은 “DSMB는 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인 만큼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높은 수준의 백신을 승인할 것으로 믿는다”며 “정치적 압력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50개 주와 5개 대도시에서 “10월 말이나 11월 초 의료 종사자와 고위험군 집단에 대한 백신 배포를 준비하라”고 통보한 사실을 공개했다. 5개 대도시란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휴스턴, 샌안토니오를 말한다. 이 문건은 지난 달 27일 발송됐는데, 그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며 “연말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지 모른다”고 언급한 날이다. 최혜림 기자 rog@

## 美 나랏빚, 70여년 만에 GDP 추월한다

### 내년 부채 22조 달러 육박… 추가 코로나 부양책 비상

미국의 내년 나랏빚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려면 추가 부양책이 절실한데,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발표한 ‘10년 재정 전망 개정’ 보고서에서 2021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21조9000억 달러(약 2경6022조 원)로, GDP 대비 104.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대로 미국 정부 부채가 GDP를 초과한다면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106%) 이후 70여년 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은 GDP 대비 정부와 민간 부문을 모두 합친 총부채비율이 올해 141.4%에 달해 일본(268%)과 이탈리아(166.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 추이  
※ 2021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상치



※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10년 뒤에는 미국 정부가 매년 갚아야 할 이자비용만 연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미국 정부와 경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 대응에 약 2조7000억 달러를 지출했으나, 올해 4~7월 연방정부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CBO는 가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채 외에도 이번 회계연도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3조3000억 달러로, 지난해

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등에 불’인 코로나19에 대처하느라 부채 문제를 등한시한 사이에 문제가 겹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재정지출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에 있다. WSJ는 2차 대전 이후에는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1950년대 말에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4%로 낮아졌지만, 이번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자와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일례로 백악관과 여당인 공화당은 부채 확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추가 부양책 규모를 1조 달러 이하로 제한하려 한다. 이는 야당인 민주당이 요구하는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공약으로 연 1조 달러 세수원인 급여세 인하를 내걸어 혼선을 주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홍콩 ‘反中 언론재벌’ 지미 라이, 또 법정형

홍콩 민주주의 운동을 지지하는 언론 재벌로, 빈과일보 시주이자 아시아 메이저 패스트패션 브랜드 지오도노 설립자인 지미 라이(70)가 3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도착하고 있다. 지미 라이는 2017년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열린 텐안먼 사태 추모 촛불집회에서 친중국 성향 매체 동방일보 기자에게 폭언하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40시간 만에 풀려났다. 지미 라이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외에도 지난해 불법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무죄 판결에도 안심할 수 없다. 홍콩/EPA연합뉴스

홍콩 민주주의 운동을 지지하는 언론 재벌로, 빈과일보 시주이자 아시아 메이저 패스트패션 브랜드 지오도노 설립자인 지미 라이(70)가 3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도착하고 있다. 지미 라이는 2017년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열린 텐안먼 사태 추모 촛불집회에서 친중국 성향 매체 동방일보 기자에게 폭언하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40시간 만에 풀려났다. 지미 라이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외에도 지난해 불법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무죄 판결에도 안심할 수 없다. 홍콩/EPA연합뉴스

## 印, 중국산 모바일 앱 118개 또 차단

### 텐센트 협력 한국산 ‘배그’도 포함

국경 문제로 갈등을 빚는 중국과 인도의 보복전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가 118개의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을 추가로 차단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보안’을 규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따른 보복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에 금지된 앱에는 한국 펍지주식회사가 개발하고 중국 텐센트홀딩스가 배포를 담당한 인기 모바일 게임 ‘배그(배틀그라운드(PUBG) 모바일)’와 알리바바그룹 산하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의 알리페이 등 유명 앱들이 다수 포함됐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이날 성명에서 “금지된 앱들은 인도의 주권과 국가 안보,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는 활동과 연관됐다”며 “이번 조치는 인도 모바일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인도와 중국이 여러 차례의 고위급 회담에서도 국경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나왔다고 전했다. 인도 국방부는 지난주 “8월 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밤 중국군이 북부 라다크 지역 국경에서 도발적인 군사 행동을 했으며 우리 군이 이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와 중국군은 6월 15일 라다크 지역 같은 계곡에서 육탄전을 벌여 인도 측에서 2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측에서도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도에서는 중국산 보이콧 운동이



인도 다람살라에서 7월 10일 중국 제품 보이콧 시위가 열리고 있다. 다람살라/AP뉴시스

일었다. 인도 정부는 6월 틱톡과 위챗 등 59개의 중국 앱을 차단하고, 7월에도 47개 앱에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 중국인의 인도 기업 투자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바꿨고, 중국 기업인과 학자, 업계 전문가에서 로비 단체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비자 감시를 강화했다. 또 인도 정부는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5G망 구축에서 화웨이테크놀로지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 11세대 CPU ‘타이거 레이크’ 공개 인텔, 14년 만에 로고까지 싹 바꿨다



후발 주자들에게 밀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타이틀이 무색해진 인텔이 설욕에 나섰다. 야심 차게 준비한 신제품 발표에 맞춰 14년 만에 회사 로고를 전격 교체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반영한 결단이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인텔은 이날 새로운 로고를 발표했다. 2006년 현재의 원형 로고로 바꾼 지 14년 만이다. 새 로고는 소문자로 표기하고 ‘i’의 사각형 점 등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기존 원형에서 더 밝고 단순해졌다.

캐년 워커 인텔 수석 부사장 겸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인텔의 새 로고는 ‘역사에 얽매이지 마라. 가서 뭔가 멋진 일을 하라’는 로버트 노이스 설립자의 명언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인텔은 최근 몇 년 간 반도체 메이커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에까지 진출했다. 새 로고는 이를 반영, 인텔이 만들어내는 과학기술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에 넘치는 창의력과 혁신에 대한 인적인 활기를

구현했다고 한다.

새 로고와 함께 인텔은 차세대 PC용 중앙처리장치(CPU)인 11세대 코어프로세서 ‘타이거 레이크’도 공개했다. 타이거 레이크는 게임이나 사진 편집 등 영상 처리 성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AI 계산용 칩을 하나로 통합해 기존 제품에 비해 이미지 처리 성능은 2배, AI 계산속도는 5배 높였다. 그레고리 브라이언트 인텔 수석부사장은 “모든 모방자를 능가하는 최고의 성능”이라고 자신했다. 라이벌인 AMD를 의식한 발언이다. 새 CPU는 삼성전자와 중국 레노버, 델 등 약 50개 업체의 제품에 올가을부터 탑재된다.

인텔은 코로나19에 따른 PC 특수와 타이거 레이크 출시에 힘입어 올해 매출이 750억 달러(약 89조 원)로 5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김서영 기자 ojung2@

# 코로나 종식까지 채권단 관리... 재매각 시도 가시화

## 아시아나항공 사실상 '노딜'... 채권단 '플랜B' 가동하나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파격 제안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은 '플랜B'로 들어설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채권단 관리하에서 운영되다가, 긴급한 자금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수혈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산은 인수대금을 깎아 준다는 채권단의 제안에도 기존 입장인 '재실사' 요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6일 이동걸 산은 회장이 정몽규 HDC현산 회장과 회동에서 '인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제안에 대한 답변이다. 산은은 앞서 "재실사는 없다"고 요구한 것에 비춰봤을 때 HDC현산의 이러한 대답은 사실상 인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HDC현산, 2조8000억 부채 추가 파악 "재실사 불가피" = HDC현산은 지난 7월 매도자인 금호산업에 '12주 재실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말 2조8000억원의 부채가 추가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전 동의 없이 채권단으로부터 1조7000억 원을 항공운영자금으로 차입한 것을 두고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현산이 지난해 12월 체결한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이행할 마음이 없어 재실

### "매매 시도 때부터 플랜B 준비"

불황에 신규 인수자 찾기 난항 '최대주주' 산은 주도 운영 유력

### 까다로운 기안기금 요청 않을 수도

아시아나항공, 화물수송 극대화

2분기 영업이익 1151억 달성

"당장 자금 조달 급하지 않을 것"

사를 요구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계약체결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항공업황이 크게 악화돼 결과적으로 당시 SPA 조건이 고평가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채권단은 현산의 재실사 요구에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가능성은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던 상반기부터 예고됐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에 재실사를 요구하기 전에도 재무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지분 취득을 미뤘었다. 또 채권단의 지속적인 대면 협의 요청에도 거절하고 입장을 반복하거나 결정을 뒤로 미루는 등 사실상 딜을 깨려는 식의 태도를 보여왔다.

딜이 무산되더라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 아니기에 채권단 내부에서도 '플랜B'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대현 산은 수석부



### 아시아나항공 M&A 일지

2019년 11월	HDC현대산업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6월	현산, 채권단에 인수 조건 재검토 요청
12월	금호산업과 SPA 체결	7월	현산, '재실사' 요구 vs 산은, '재실사 불가' 입장 고수
2020년 4월	현산, 지분 취득 무기한 연기	8월	이동걸 산은 회장과 정몽규 현산 회장 세 번째 회동
5월	산은, 현산에 6월 말까지 인수 의지 표명 요청	9월	현산, 기존 입장 고수

###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지분 현황

KDB산업은행	
보유 주식 내역	전환사채권
보유 주수(비율)	9399만1174주 (26.53%)
한국수출입은행	
보유 주식 내역	전환사채권
보유 주수(비율)	3705만1827주 (10.46%)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행장은 지난달 3일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 서도 "매매 시도를 할 때부터 플랜B를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M&A 무산 이후에는 신규 인수 의향자를 찾아야 하지만, 업황이 나빠진 현재로서 이것도 여의치 않아 당장은 채권단 관리로 넘어가게 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8000억 원 규모의 영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했다. 이를 출자 전환하면 산은의 지분율이 단숨에 36.9%로 올라 금호산업(30.7%)을 제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한때는 이것이 '국유화(국가가 보유한 자산)' 논란을 빚기도 했으나, 최 부행장이 직접 '국유화가 아니라 '채권단 관리'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해명했다.

◇2500억 계약금 반환, 법정다툼 전망 = 긴급 자금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우선으로 꼽힌다. 기안기금은 40조 원 규모로 조성돼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국가 지원금이다.

해운업과 항공업이 우선 지원 대상인데, 아시아나항공은 M&A 절차가 진행되

는 상황이라 기안기금 지원 대상에서 유예된 바 있다. 하지만 이것도 M&A 딜이 공식적으로 무산된 이후에는 달라진다. 은성수 위원장은 M&A 진행 중에는 기안기금 투입이 어렵다고 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자체는 "기안기금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선 아시아나항공이 기안기금으로부터 2조 원이 수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안기금의 지원 조건과 후속 조치 등이 까다롭기에 아시아나항공이 기안기금을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아직 기안기금을 요청한 기업이 한 곳도 없다. 채권단 관계자는 "기안기금은 자금이 필요한 회사에서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안기금은 채권단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아니란 뜻이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2분기 화물수송을 극대화하며 영업이익 1151억 원을 기록하는 등 당장 자금 요구가 시급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도 있다.

채권단으로서 HDC현산과의 M&A 딜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앞서 HDC현산 컨소시엄은 지난해 말 금호

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구주 30.77%를 3228억 원에 인수하고 2조1772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내용의 SPA를 체결했다. 이때 HDC현산이 지출한 계약금은 2500억 원이다. M&A 딜이 끝나면 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나, 적지 않은 금액이라 HDC현산은 소송을 통해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으려 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HDC현산은 재실사를 요구하면서 금호 측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사실상 계약 무산의 책임을 금호로 돌리려는 의도인 셈이다.

소송을 대비한 듯 이동걸 회장은 지난달 3일 간담회에서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하등 잘못된 것이 없다"며 "법적인 책임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금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계약이 무산될 위험과 관련해서는 HDC현산이 제공한 원인 때문"이라며 "계약금반환 소송은 없으리라고 본다"고 강조하면서 HDC현산이 계약금반환 소송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은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전 금융권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6대 금융협회장 "한국판 뉴딜 지원" 한뜻

### 금융권 공동 TF 구성 등 협력키로

6개 금융협회장들이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 금융권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뉴딜펀드를 통해 디지털과 그린 분야로 민간자본이 흘러 들어가 국민들의 일자리와 자산을 늘리고, 우리 산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된

것처럼 K-뉴딜도 경제회복과 도약의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 금융협회가 합심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장들은 회의가 끝난 뒤 금융권도 힘을 모아 대규모 자금을 '한국판 뉴딜'에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다. 필요시 금융권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등을 통해 K-뉴딜이 빠른 시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서지연 기자 sjy@

## 車담보 임의 처분해도 채무 상환 10일 유예

### 여전사 약관 64개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64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여전사)와 고객(채무자) 간 체결되는 여신 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등의 경우 △금융회사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통지의 도달일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차주는 만기 전이라도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시점 이후부터 연체가산이자 부과된다.

그런데, 여전사가 사용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 및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 약관은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양도·대여·등록말소 등)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개별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특약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담보물 등 임의처분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해당 조항은 기본약관인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를 특약을 통해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 박종복 SC제일은행장 3연임 성공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 3연임에 성공했다. SC제일은행은 3일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박 행장을 차기 은행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차기 은행장 임기는 3년으로 내년 1월 8일 시작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SC제일은행 이사회

는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차기 은행장을 조기 선임하기로 하고, 박 행장을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박 행장은 2015년 행장을 시작하면서 뛰어난 리더십과 풍부한 은행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한 조직재편과 안정적인 비즈니스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재임 이후에도 스탠다드차타드와 제일은행이라는 두 브랜드를 조화롭게 활용해 전략적 비즈니스 제휴와 디지털 역량 강화, 자산관리 비즈니스 성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주도했다. 문수빈 기자 bean@

### "AI로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 우리銀,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고객의 금융 거래 데이터 중 금융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AI 기술로 실시간 탐지해 사전에 피해를 막는 것이다. 지난 3

월부터 시스템 재구축을 시작해 1일부터 정식적으로 운영됐다.

시스템 개선으로 AI가 비대면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를 정밀하게 탐지해 더욱 효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 우리은행은 신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발생하면 AI를 통해 신속하게 인지해 유사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수빈 기자 bean@

# 현대차, 전기차 충전·결제 '토털 인프라' 만든다

'I.O.N' 'Hi 차저' 등 상표등록  
"충전 브랜드명 놓고 3종 저울질"  
자동전자결제 'E-PIT 차저' 명명  
이달엔 유럽 충전업체 지분 인수  
3분 충전으로 100km 주행 가능



현대차가 전기차 충전과 시스템 개발, 서비스 나아가 전자결제까지 포함한 토털 인프라를 구축한다. 사진은 현대차가 추진 중인 고속충전 시스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비롯해 충전기 개발과 생산, 진단·점검 나아가 전자결제까지 브랜드화하고 상표등록을 마쳤다. 올해 초 정관변경을 통해 '전기차 충전 및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현대차가 이를 한 단계 더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차 업계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기차용 충전기 또는 이동형 소형충전기 개발과 생산, 충전 예약용 소프트웨어 개발, 고속 충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상표를 등록했다. 구체적으로 △I.O.N △Hi 차저(고속 충전) △ION PIT 등이 새 상표로 등록됐다.

나아가 전기차 충전요금의 전자결제를 위한 브랜드도 준비한다. 별도의 인증이나 결제 없이 사전에 등록된 멤버십 카드(또는 신용카드)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해주는 전자 결제 서비스다. 서비스명은 'E-PIT 차저'로 등록했다.

현대차는 최종 브랜드명을 제품전략과 시장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계획이

다. 하나의 사업 목적을 놓고 여러 브랜드를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도 이런 이유다.

현대차는 내년에 출범할 차세대 전기차 브랜드를 '아이오닉(IONIQ)'으로 지난달 확정했다. 제네시스가 모델 이름에서 브랜드가 된 것처럼, 아이오닉 역시 친환경차 모델명에서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거듭나게 된 셈이다.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아이오닉을 내세운 만큼, 관련 인프라 역시 같은 어원과 어감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I.O.N 또는 △ION PIT 등 비슷한 브랜드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런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3월 주총을 통해 사업목적에 있는 '각종 차량과 부분품의 제조판매업'을 수정해 '각종 차량 및 기타 이동수단, 부분품의 제조 판매업'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전동화 차량 등 각종 차량 충전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전기차 토털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게 정관을 변경한 지 6개월 만에 '전기차 토털 인프라 구축' 전략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이미 지난해부터 나온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작년 9월 유럽의 다국적 전기차 충전 업체 '아이오니티(IONITY)' 지분 인수(20%)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꼬박 1년 만인 이달 2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의 '아이오니티' 지분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독일 다임러그룹(메르세데스-벤츠)과 BMW·포르쉐, 미국 포드와 함께 아이오니티의 공동 지배권(지분 20%)을 확보하게 됐다. 아이오니티 지분 인수는 현대차가 유럽 시장에서 자체 개발하는 고전압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은 현행 급속 충전기보다 충전 속도가 최대 7배 빠른 350kW급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아이오니티가 제공하는 350kW급 초고속 충전기는 3분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더불어 아이오니티는 디지털 결제 방식과 유럽 전기차 충전 표준을 도입, 전기차 제조사에 구매받지 않는 광범위한 호환성을 갖췄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브랜드 론칭을 앞두고 다양한 상표권을 선점하는 차원으로 등록한 것이며 구체적인 브랜드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등록된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추가로 더 많은 브랜드 후보군을 등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집에서 시작하는 좋은 삶”...LG, 뉴노멀 가전 기준 제안

'IFA 2020' 온라인 생중계  
박일평 사장 홀로그램으로 등장  
"AI 활용 24시간 원격 건강관리"  
판교에 스마트홈 '쌍큐홈' 구현



LG전자가 경기도 판교에 스마트홈 통합 솔루션을 구현한 '쌍큐홈'. 사진제공 LG전자

박일평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사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앞당긴 뉴노멀 시대의 변화된 생활을 조망하며 집에서 안심, 편리, 재미 등 3가지 가치를 극대화해 고객에게 '좋은 삶'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LG전자는 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IFA 2020'에서 '집에서 좋은 삶이 시작됩니다(Life's Good from Home)'를 주제로 프레

스 콘퍼런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IFA 홈페이지는 물론 LG전자 글로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연사로 나선 박일평 사장은 프레스 콘퍼런스장 무대에 직접 나오는 대신 미리 촬영한 홀로그램으로 등장했다.

이색적인 진행은 행사에 참석한 미디어, 업계 관계자를 포함해 온라인 생중계로 행사를 관람하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박 사장은 "코로나19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집에 대한 새로운 잠재력을 확인하고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라이프스타일 이노베이터(Lifestyle Innovator·혁신자)로서 혁신을 선도하는 가운데 고객들의 안심하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좋은 삶'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고객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위한 LG전자 스타 가전을 소개했다. 스타일러,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은 차별화된 '트루스팀(True Steam)' 기술을 적용했다. 물을 100도(°C)로 끓여 만드는 트루스팀은 살균, 탈취 등에 효과적이다. 또 올레드(OELD·유기발광다이오드) TV, LG 씽큐 앱, LG 클로이(LG CLOi) 로봇 등을 소개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통해 누리는 미래를 제시했다.

박 사장은 로봇이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대신하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오픈소스 로봇 운영체제(ROS2)와 호환되는 LG 클로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LG전자 로봇이 동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로봇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객이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인공지능을 통해 고객은 더 쉽고 정확하게 24시간 내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에 이어 LG전자 BS 사업본부 유럽 사업 담당 김경호 부사장이 연단에 올랐다. 김 부사장은 최신 가전 제품과 IT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는 LG 씽큐 홈을 소개했다.

씽큐 홈은 LG전자가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 조성한 실제 공간이다. 이번 IFA 2020의 주제인 'Life's Good from Home'를 고스란히 담았다. LG전자의 차별화된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 집 안 주요 기기들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스마트홈 통합 솔루션이 구현돼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롯데케미칼 재생 플라스틱 화장품·식품용 FDA 승인

롯데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화장품·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는 PCR-PP(재생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소재는 소비자가 사용한 화장품 용기를 수거 후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리사이클 원료로 만들고, 미국 식품의약처(FDA) 안전기준에 적합한 가공 공정을 거쳐 PCR-PP로 재탄생하게 된다.

PCR-PP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플라스틱 리사이클 원료를 30% 및 50% 함유한 등급으로 개발됐으며 화장품과 식품 용기 등의 사용을 위한 FDA 인증을 국내 최초로 완료했다. 현재 국내외 화장품 용기 제작 업체들과 물성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내외 글로벌 화장품 업계에서는 2025년까지 화장품 포장재를 최대 100%까지 재활용 또는 플라스틱 리사이클 원료로 만든 제품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화장품 용기 중 약 60%가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되고 있고 이 중 30% 정도가 폴리프로필렌(PP) 소재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 현대차 '투싼' 5년 만에 환골탈태...15일 론칭

현대자동차가 신형 투싼의 티저 이미지(사진)를 3일 공개했다.

아울러 신형 투싼의 중간주행등(DRL)을 모티브로 한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현대차의 차세대 베스트셀링 SUV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투싼은 2004년 첫 출시 후 전 세계 누적 700만 대 이상 팔린 현대차의 베스트셀링 SUV다.

오는 15일 온라인을 통해 세계 시장에 공개할 신형 투싼은 2015년 3세대 출시 이

후 5년 만에 진화한 4세대다.

전면부는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처럼 빛의 변화에 따라 입체적으로 반짝이는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 위에 시동을 켜면 중간주행등으로 점등되는 '파라메트릭 주얼 히든 램프'를 더해 강렬한 첫인상을 준다. 실내는 개방형 클러스터와 대시보드 아래로 위치를 내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탁 트인 전방 개방감을 준다.

김준형 기자 junior@

## 한화 'K9 자주포' 호주 뚫었다

1조 규모 '우선 공급자' 선정

한화디펜스는 3일 호주 국방부의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Land 8116' 자주포 획득사업의 우선 공급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화디펜스는 호주법인(HDA)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한 뒤 내년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 기타 지원 장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총 1조 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됐다.

최종 계약까지 성사된다면 호주 사업도 전 10년 만에 K9 자주포가 결실을 이루게 된다. 2010년 K9 자주포가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최종 우선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됐지만, 현지 사정으로 2012년 사업이 중단됐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방-방산 협력을 주요 의제로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12월엔 양국 외교·국방(2+2) 장관 회의를 열어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디펜스도 호주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지 생산시설 구축 계획 등 여러 지원 방

안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현지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리차드 조(Richard Cho) 호주법인 대표는 "현지 자주포 생산 및 정비 능력을 구축하여 최고 성능의 장비를 호주 육군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호주군을 통한 K9의 성능개선 활동이 K9 계열 장비를 운용 중인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9 자주포는 155mm, 52구경장으로 높은 화력과 기동성, 생존확률이 특징이다. 호주에는 방호력과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한 최신 장비를 납품할 예정이다. K10은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고, 탄약을 신속하게 자동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성수 한화디펜스 대표이사는 "호주 K9 도입 결정은 한-호주 국방-방산협력의 값진 결실이자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입증한 쾌거"라며 "호주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지 생산시설 구축과 인력양성 등에 힘써 호주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플라스틱 생수병을  
종이로 바꿀 수 있을까?



폐플라스틱 원단을 활용한 의류 잡화 브랜드  
뽕세누 / 박준범 대표

청년 창작가와 소상공인이 공생하는 디자인 기업  
000간 / 신윤예 대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종이팩 생수 브랜드  
DE Studio / 이창현, 오승범 대표

↑  
폐플라스틱을 패션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  
청년 작가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QR코드를 찍어 [마지막승부]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 사회의 문제는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는 늘리는 창업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하나의 창업이 성공하면  
또 하나의 일자리가 생기고

하나의 소셜벤처가 성장하면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사회혁신창업가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소셜벤처아카데미 소셜벤처창업가 육성을 위한 11주 코칭 프로그램 **하나파워오펜런지** 다양한 단계의 사회혁신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韓 ‘양자암호통신’ 글로벌 주도권 잡았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양자암호통신 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았다. 국제 정보보호 분야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양자암호통신 전담 연구과제 그룹 신설 및 보안 표준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보안 연구반(SG17)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마련한 정보통신 보안관련 국제표준 8건이 채택되고, 양자암호 통신 표준의 개발을 전담하는 과제그룹이 신설됐다고 3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양자암호통신·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차량 보안과 관련된 표준 6건이 사전 채택되고,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사고 대응과 관련된 표준 2건이 최종 채택됐다.

보안 표준 6건은 △양자암호키 분배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양자암호키 결합과 보안키 공급 표준 △블록체인 기술 용어 정의 △보안 보증 표준 △차량 외부 접속장치 보안 △차내망 침입탐지시스템 등이다. 차량 침입 탐지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보안을 강화하고, 자동차 업체간에 상호 운용성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이 제안한 양자암호통신 표준 8건 국제표준 채택  
SKT·카카오 참여 표준개발 전담그룹 SG17 내 신설  
정부, 시범 인프라 구축... 올 8개 컨소시엄 123억 투입

최종 채택 2건 중 비식별 처리 프레임워크 표준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절차와 대상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이어 사이버 보안 사고의 증거 수집과 보존을 위한 지침은 사이버 침해 발생 시 증거 데이터를 수집·보존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판

단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 주요 내용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기술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표준 채택 이외에도 우리나라 주도로 양자암호통신 표준개발을 전담하는 과제그룹이 SG17 내에 신설돼 ITU-T에서 우리나라 입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준 개발에는 고려대, 금융보안원, 순천향대,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기술단, 현대자동차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미래 핵심

기술인 양자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초석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한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사업은 비대면 확산에 맞춰 보안을 강화한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공공·의료·산업 분야에 구축하고 응용서비스를 발굴하여 양자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프로젝트다. 양자암호통신은 만지면 터지는 비눗방울처럼 누군가 도청을 시도하면 신호가 붕괴돼 전달이 안되는 양자의 물리적 상태를 활용, 도청을 방지하는 물리적 보안체계다. 이런 양자암호통신은 소인수분해 등 수학적 계산에 기반을 둔 기존의 암호체계를 풀 수 있는 양자컴퓨터의 등장에도 유효한 보안 체계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활용해 공공·의료·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협력체(컨소시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파급시키고, 낙수효과를 통해 향후 양자산업의 초석이 될 중소·벤처 기업 등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를 통해선 KT, SKB, LGU+ 주관의 8개 컨소시엄과 4일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산업분야 16개 구간에 양자암호통신 장비 및 양자내성암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용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8개 컨소시엄에는 올해 123억 원이 투입된다. 공공분야 참여기관으로는 광주광역시청과 전남·강원도청, 의료분야는 연세의료원·성모병원·을지대병원, 산업분야는 한화시스템·우리은행·CJ올리브네트웍스·현대이노텍·LG이노텍이 선정됐다.

이재훈 기자 yes@

## 삼성SDS “3D 설계도, 모바일로 공유”

‘넥스플랜트 3D 엑셀런스’ 출시... 설계 데이터 현장공유·비대면 협업 지원

삼성SDS는 3차원 설계 데이터의 현장 공유 및 비대면 협업을 지원하는 넥스플랜트 3D 엑셀런스 솔루션으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3차원 설계도는 CAD 제품별로 데이터 형식이 달라 호환이 어렵고, 도면을 보기 위해 고가의 전문 소프트웨어와 고성능 PC가 필요했다. 또 도면 유출의 위험이 있어 설계 단계의 파트너사 협업은 물론이고 생산 및 시공 현장과 정보 공유도 쉽지 않았다. 이에 반해 넥스플랜트 3D 엑셀런스는 30여종의 다양한 3D 설계 데이터를 호환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경량화해 웹과 모바일에서 빠르게 시각화한다. 또 클라우드 기반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안성을 강화해 산업 현장의 고민을 해결했다. 실제로 이 솔루션을 도입한 한 건설



삼성SDS의 한 현장 엔지니어가 태블릿PC를 통해 넥스플랜트 3D 엑셀런스로 제작한 3D 디지털 매뉴얼을 보면서 작업하고 있다.

사는 3D 설계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유하면서 발주처-시공 현장-파트너사 간 협업이 가능해졌다. 특히 네트워크 인프라가 열악한 해외 공사 현장에서 경량화된 설계도면을 모바일로 빠르게 조회하며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었고, 고가의 CAD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비용도 절감했다.

고객 지원 분야에서는 현장 엔지니어가 모바일 기기로 3D 매뉴얼을 확인하여 제품 설치와 AS를 진행하고, 사무실에 있는 전문가에게 영상을 공유하며 실시간 원격 지원을 받게 된다. 샘플 없이 쉽고 빠른 3D 디지털 매뉴얼 제작이 가능해 교육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삼성SDS 이재철 인텔리전트팩토리 사업부장(부사장)은 “넥스플랜트 3D 엑셀런스가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삼성SDS는 AI, 3D 등 최신 IT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오리지널 콘텐츠의 힘... 카카오TV ‘흥행몰이’

출시 이틀 만에 누적 조회 350만  
드라마 ‘연애혁명’ 조회수 100만  
‘찐경규’ ‘페이스...’ 예능도 인기

카카오TV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9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카카오톡을 통한 영상콘텐츠가 신선한 흥미를 이끌어내며 초반 흥행몰이하는 모습이다.

카카오M은 카카오TV 출시 후 이틀만에 누적 조회수 350만 건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TV의 강점은 오리지널 콘텐츠다. 카카오TV 오리지널 드라마 ‘연애혁명(사진)’ 1회는 반나절만에 조회수 50만 회, 이틀 만에 100만 회를 넘겼다. ‘찐경규’와 ‘페이스아이디’ 1회는 각각 43만, 38만을 기록했다.

당일 함께 공개된 ‘내 꿈은 라이언’, ‘카카오TV 모닝’, ‘아만자’ 등을 포함한 카카오TV 오리지널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는 총 350만 회를 돌파했다.

콘텐츠뿐 아니라 카카오TV 오리지널 플랫폼도 강세다. 카카오TV 오리지널을



연애혁명

볼 수 있는 ‘카카오TV채널’과 ‘#카카오TV’의 이용도 증가세다. 카카오TV를 통한 오리지널 콘텐츠의 론칭을 처음 알린 26일 이후 일주일 만에 채널 구독자가 150만 명 증가, 현재 250만 명을 넘겼다.

카카오TV 오리지널 콘텐츠는 기존 디지털콘텐츠와의 차별화를 전적으로 삼았다. ‘카카오TV 모닝-특이나 할까?’는 마주앉아 카카오톡으로만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다. 스타의 카톡 말투와 이모티콘 등을 엿볼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전했다. 이효리의 스마트폰을 그대로 공개했던 ‘페이스아이디’는 세로형 스크린 콘텐츠로 기존

기획과는 다른 접근을 보여줬다.

카카오TV 콘텐츠의 원작 IP도 인기가 높다. ‘연애혁명’의 원작은 네이버 웹툰 목요웹툰 1위 자리를 유지하며 꾸준한 인기를 유지 중이다. 특히 원작과 드라마 등 장인물의 싱크로율이 높아 드라마에 더 몰입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또 마스코트 서바이벌 ‘내 꿈은 라이언’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팬덤이 형성되고 1만 명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높이고 있다.

신중수카카오M 디지털콘텐츠사업본부장은 “기획과 구성, 포맷까지 모바일에 최적화된 오리지널 콘텐츠들과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채팅을 하면서도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신선한 경험이 더해져 더욱 재미를 배가시킬 것”이라며 “아직 론칭 초기인만큼 앞으로 카카오TV의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카카오프렌즈, 가을 에디션 ‘하비스트 프렌즈’ 출시  
카카오X의 캐릭터 브랜드 카카오프렌즈는 9월을 맞아 2020 가을 에디션 ‘하비스트 프렌즈’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4일 출시되는 하비스트 프렌즈 에디션은 추수 작물을 모티브로 옥수수·땅콩·버섯 등으로 변신한 캐릭터들이 수확의 계절을 즐기는 컨셉이다. 토이·패션·리빙 등 총 40종의 아이템들이 포함됐다. 사진제공 카카오프렌즈

## 배달 전문 공유주방·앱으로 폰 개통 허용

과기부 ‘비대면 패스트트랙 샌드박스’ 처리  
모바일 운전면허·대형 승합택시도 실증특례

공유주방과 비대면 통신 가입, 모바일 운전면허, 대형 승합택시 등의 신기술·서비스가 법의 규제를 넘어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확정됐다.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휴대폰·PIN번호, 생체정보 활용하는 간편 본인인증 앱 PASS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 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 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운영 시작 시간을 오전 6시(기존 오전 7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km 내외(기존 2km)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 및 지역 반경 확대를 허가했다. 이재훈 기자 yes@

〈신동빈 회장〉

# “경영 위기 속에도 인재 육성”... 롯데 ‘후의 한 수’

무보증사채 발행 2500억 조달  
오산 인재개발원 500억 투입  
신 회장 ‘미래 투자’ 의지 반영

롯데그룹이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경영 위기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총수 신동빈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무보증사채 발행을 통해 2500억 원을 조달했다. 회사 측은 이를 채무상환자금(1400억 원), 운영자금(600억 원), 시설자금(500억 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 시설자금에 투입되는 500억 원에 이목이 쏠린다. 롯데지주는 이 금액을 ‘롯데인재개발원오산캠퍼스 친환경 건물 준공’에 사용할 예정이다.



신동빈(오른쪽)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그룹

롯데그룹은 지난해 8월 미래 환경에 맞는 최신 학습 환경 구현 차원에서 오산캠퍼스 재건축을 시작했다.

1993년 1월 문을 연 오산캠퍼스(당시 롯데중앙연수원)는 롯데그룹 인재 개발의

산실로 오랜 기간 롯데그룹 신입사원과 승진자를 교육하는 장소로 사용돼 왔다.

새로 건립되는 건물은 연면적이 기존보다 4배 이상 커진 1만7192평에 달한다. 2000여 명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규모다.

롯데그룹은 계획했던 대로 2021년 9월 오산캠퍼스 문을 새롭게 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18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당초 예정됐던 투자의 일환이지만,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 상황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투자는 아니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롯데그룹은 장사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우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흔들리고 있다. 이 회사의 상반기 영업이익(535억 원)은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내부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롯데지주 노사는 지난달 2020년 연봉 동결에 합의했다. 노사는 위기 극복을 위해 임금 동결과 함께 일부 복지제도의 한시적 중단에도 동의했다. 또, 최근에는 그룹 2인자였던 황각규 부회장이 실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닌 시점에 경영에서 물러났다. 그룹이 사실상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재계는 경영위기 속에서도 이번 투자에 신동빈 회장의 인재 확보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가 무급 휴직, 주력 브랜드 매각, 급여 삭감, 투자 중단 등 전방위적 수단을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인재 육성 투자는 미루지 않겠다는 신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 회장은 지난해 오산캠퍼스 재건축 공사장을 직접 찾아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는 결국 롯데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오산캠퍼스를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을 키워낼 최고 시설로 꾸미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라”고 발언했다.

신 회장은 경영 복귀 이후 줄곧 인재 확보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2018년 말 경영에 복귀한 직후 2023년까지 7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복귀 직후 회의에선 “어려운 환경일 수록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추석선물 ‘안심배송’ 이상무 현대백화점은 추석을 앞두고 매장에서 구매 후 배송되는 모든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안심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선물세트 포장부터 각 가정에 배송되는 전 과정에 방역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선물세트를 포장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와 ‘위생장갑’ 착용을 의무화한다. 소독이 완료된 선물세트에는 배송박스 상단에 ‘안심 선물 스티커’가 부착된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그룹

장마·태풍에 금값 된 헛사과...

## 유통업계 ‘박리다매 전략’ 승부수

장마·태풍에 도매가 66% 급등  
회원 할인·흙집 제품 등 행사 붐물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와 계속되는 태풍으로 올 추석 대목에 과일 시세가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마진을 최소화한 박리다매 전략으로 매출 확대에 나서고 있고, 소비자는 사전 예약 등을 활용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시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잡고 긴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가격이 오른 국산 과일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이마트는 9일까지 일주일간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갑시다’ 행사 품목으로 ‘경북 헛사과’를 할인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포인트 회원 인증 시 1인당 최대 1만 원까지 20% 할인 판매하며, ‘경북 사과(5~8입, 1.5kg·봉)’를 9980원에서 20% 할인된 798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농산물유통정보센터(ATKAMIS)에 따르면 1일 홍로 헛사과 도매가는 상품(10kg) 기준 7만1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66.6% 늘었다. 홍로 사과 가격 확인이 가능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사과 가격 상승에도 이마트는 오히려 판매가를 낮췄다. 이마트에 따르면 2019년과 2018년 9월 첫째 주 헛사과 판매 가격은 각 8980원(1.5kg·봉), 9900원

(1.8kg·봉)이었다. 이번주 행사기간 7980원(1.5kg·봉)은 이보다 각 11%, 3% 가량 저렴하다. 이마트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과 함께 자체 마진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당 농가의 사과 생산 물량 전체를 구매하는 ‘폴셋 매입’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폴셋 매입은 특품, 일반과, 보조개 물량을 한번에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6월 우박 피해를 본 경남 지역의 과수 농가를 돕기 위해 ‘우박 맞은 사과’를 출시한다. 이상품은 경남 지역 고랭지 헛사과로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한 게 특징이며, 가격은 2kg에 4000원대로,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사과보다 40%가량 저렴하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보름 동안 사전 예약 판매에 나선 결과 매출이 전년 대비 29.4% 늘었다.

특히 전통적인 선물세트 강자인 신선세트가 잘 팔렸으며 과일 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46.5% 증가했다.

할인 혜택이 소비자 발걸음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마트는 추석 선물세트에 약판매 기간 동안 최대 100만 원 상품권을 증정하며, 엘포인트(L.POINT)회원에게는 최대 30%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또, 롯데/신한/KB국민 등 7대 카드 결제 시 무이자 이용이 가능한 점도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었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 ‘도심형 아웃렛’ NC신구로 서남권 쇼핑몰 왕좌 도전장

7일 프리 오픈

AK플라자 기존 운영 틀 유지  
경쟁사 고급화 전략과 차별화

코로나궤 개장 특수 실종 우려  
전담 방역팀 투입·모니터링



NC신구로점 조감도. 사진제공 이랜드리테일

이랜드리테일의 야심작 NC신구로점이 다음주 새롭게 문을 연다. 이랜드는 AK플라자 백화점으로 운영되던 이점포를 도심형 아웃렛으로 재단장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신세계타임스퀘어점,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등이 자웅을 겨루는 서울 서남권 쇼핑몰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11일 NS신구로 정식 오픈을 앞두고 7일 프리 오픈(Pre-open)에 나선다. 이매장은 이랜드리테일의 48번째 유통채널 점포로 서울에서는 뉴코아 강남점, NC송파점에 이은 8번째다. 서울 서남권에 이랜드리테일이 운영 중인 점포는 2001 구로점과 NC신구로 등 총 2곳이다. 이랜드 1호 유통 점포인 NC당산점은 2016년 철수했다.

NC신구로는 27년간 AK플라자 구로본점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연면적 3만3699평 규모에 7개층 2개관으로 구성됐다. AK가 백화점으로 운영했던 이곳을 이랜드는 이월상품과 신상품을 함께 파는 도심형 아웃렛으로 운영한다.

NC신구로는 1호선 구로역과 연결돼 유통인구가 풍부하고, 배후지로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신도림동과 목동, 신길뉴타운, 광명시 등이 꼽힌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국내 최초 도심형 아웃렛을 선보인 이랜드가 NC신구로점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한번에 보여주는 새로운 차원의 도심형 콘셉트로 서울 서남권의 대표 쇼핑몰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C신구로점은 기존 AK플라자 구로본점의 틀을 그대로 따른다. 1층은 액세서리와 시계, 영계주일, 핸드백 매장을 비롯해 더바디샵과 시코르 등 화장품 전문점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스타벅스가 새롭게 등지를 뜬다. 지하 1층은 김순례닭강정과 101번지 남산돈까스, 오규당, 도쿄이찌바 등 델리코너와 식품관으로 구성했다.

2~3층은 패션 코너, 4층은 모던하우스 등 리빙과 마이리틀타이거 등 아동용품 공간으로 구성했다. 5층은 나이기와 아디다스팩토리 등 스포츠 브랜드와 함께 북스리브로 서점을 입점시켰다. 집객 시설도 대거 유치해 6~7층에는 극

장인 CGV와 용호낙지와 남도분식, 명장반점 등 SNS 인기 맛집과 애슬리컨스로 꾸미고, 키즈카페 코코몽 키즈랜드는 이키즈랜드로 재탄생했다.

도심형 아웃렛이지만 명품 브랜드는 부족하다. 이랜드는 럭셔리 갤러리라는 명품 편집샵을 통해 버버리와 프라다, 구찌 등 병행 수입 명품을 팔아왔지만, NC신구로점에는 해당 점포가 없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년 초 오픈하는 현대백화점 여의도점과 신세계 타임스퀘어점이 명품 유치 등 고급화에 나서는 만큼 차별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 인구가 많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역시 무신사와 지그재그 등 인기 온라인 쇼핑몰의 탑 셀러 브랜드 쇼핑공간을 2층에 마련해 럭셔리보다는 MZ세대를 겨냥한 젊은 백화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다만, 이랜드리테일 측은 오픈 시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시기와 겹쳐 개장 특수를 누리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6일까지로, NC신구로 프리오픈 전날까지다.

회사 관계자는 “방역 측면에서도 48인의 전담 방역조를 상시 투입해 영업 중에도 방역을 지속할 계획이며, 모든 외부 출입구에 설치한 38개 센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고객 카운팅 및 동선별 혼잡도를 측정하는 등 최신 기술을 통해 안전한 쇼핑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뚜레쥬르 가맹점주협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매각설에 휩싸인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점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뚜레쥬르 점주들은 최근 또다시 매각설이 불거지자 단체 행동에 나섰다.

뚜레쥬르 가맹점주 협의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점주협의회는 잇달 매각설로 가맹점주

들의 경영불안이 가중되자 결국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사를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협의회 측은 CJ그룹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손실을 뚜레쥬르 매각으로 보전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가맹점주와 본부는 갑을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인 만큼 매각 역시 점주들과의 협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은

일방적인 본사의 매각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한 결과다.

점주협의회는 매각금지 가처분 외에도 본사와의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푸드빌은 앞서 주력 브랜드인 투썸을 매각한 바 있으며 투썸 매각 후 다음 매각 브랜드로 뚜레쥬르가 거론돼왔다. 이전까지는 매각설 수준이었으나 CJ그룹이 최근 매각 주권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청약경쟁률·증거금·연속 상한가 1위〉

# ‘BTS’ 빅히트엔터 ‘증시 그램미상’ 거머쥘까

증권신고서 제출 전날 소속가수 BTS ‘빌보드 1위’에 시초가, 공모가 대비 2배 오르고 상한가 ‘파상’ 기대감  
상장 후 기업가치 최대 6조...시총 60위 내 진입 가능성

미국 빌보드를 점령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증시에서 ‘그램미상’ (청약경쟁률, 증거금, 연속 상한가)을 거머쥘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 청약경쟁률 1위 타이틀은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 이루다가 갖고 있다. 3039.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신규 상장을 앞둔 카카오게임즈로 58조 6000억 원의 자금을 모았다. 소위 ‘파상(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 오른 후 상한가 기록)’과 ‘3연상(3거래일 연속상한가)’의 주인공은 SK바이오 팜이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날 소속가수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 첫 정상에 오르는 역사적인 성과를 내면서 상장 첫날 ‘파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떠올랐다. 상장 후 기업가치는 최대 6조 원대로 평가된다.

◇상장 후 기업가치 최대 6조 전망... 시

총 60위 이내 진입 가능= 3일 빅히트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이번 상장을 위해 713만 주를 공모한다. 공모예정가는 10만5000원~13만5000원이며, 공모예정금액은 7487억~9626억 원이다. 희망 공모가 밴드에 따르면 빅히트엔터의 상장 후 시가총액은 3조6000억~4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4~25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다음 달 5~6일 청약을 거쳐 10월 중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모가가 희망가격의 상단으로 결정되면 빅히트는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60위 이내에 진입가능하다.

보통 공모가격이 적정 기업가치의 80% 수준에서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관사들은 빅히트 상장 후 예상 기업가치가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전일 증가 기준 ‘3대 기획사’로 일컬어지는 △JYP엔터테인먼트(1조3311억 원) △

공모예정 주식 수	713만 주
상장예정 시가총액	3조5539억~ 4조5692억 원
주당예정 발행가	10만5000~13만5000원
공모예정 금액	7487억~9626억 원
상장예정 주식 수	3384만192주
수요예측일	9월 24~25일(국내) 9월 14~25일(해외)
일반청약일	10월 5~6일
상장예정일	10월 중순
상장주관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JP모건, 미래에셋대우



YG엔터테인먼트(9201억 원) △SM엔터테인먼트(8747억 원)의 합산 기업가치인 3조1259억 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기업가치에 대해 증권업계는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빌보드 핫 100 차트 최초 석권, 탈아시아 공연 비중 50%, 누적 음반판매량 3000만 장 육박 등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빅히트는 명실상부 압도적 1위 연예기획사”라며 “엔터주들의 현재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이 30~35 배임을 고려 시 45~88%의 일등주 프리미엄

PER (주가수익비율)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것으로 이 비율이 높으면 회사의 이익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다.

탄소년 멤버의 1인당 보유 주식 평가액은 240억313만 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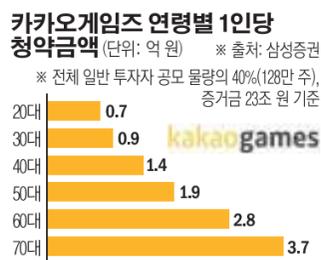
멤버들 뿐만 아니라 초기투자자들 역시 대박을 터트릴 전망이다. 빅히트엔터는 현재 방 대표가 지분 43.44%(1237만733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넷마블(24.87%), 스틱스페셜시슈에이션(12.15%), 메인스톤(8.71%), Well Blink(6.24%)가 5%이상 주요주주다. 특히 넷마블과 스틱스는 2018년 빅히트엔터 기업가치가 8000억 원 수준일 때 투자해 회수 금액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주식 평가액을 단순 계산하면 넷마블은 9568억 원 수준이며, 스틱스페셜시슈에이션은 4675억 원, 메인스톤은 3352억 원, Well Blink는 2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카카오게임즈’ 70대 1인당 청약액 3.7억으로 최고

### ‘증시 그레이네상스’ 이끄는 실버세대

60대 2.8억·50대 1.9억 순  
은퇴자금 증시 대거 유입 분석  
청약 고객 수는 40대가 1위  
코로나 영향 온라인 청약 81%



서울 마포 인근 6층 건물 맨 꼭대기 층. 문을 열고 넓은 테이بل이 있는 포근한 응접실 같은 공간을 지나면 벽에는 화려한 색채의 크고 작은 그림들이 걸린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증권맨 출신 A씨가 은퇴 후 마련한 작은 전시 공간이다. 그는 작품의 배경과 색채에 더해 피카소와 같은 해외 유명 화가들의 화풍을 곁들여 설명했다. 그가 운영하는 그림 동호회 ‘M산책’은 요일마다 돌아가며 국내외 유명 미술가 작품을 놓고 한바탕 토론이 벌어진다.

A 씨처럼 50·60대에 은퇴를 한 직장인이 주축이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여유가 생긴 주부들이 본인 취향을 찾아온다. 연회비를 없다. 그저 삶의 여유를 느끼고 공유할 뿐이다.

경제권과 실권을 잃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70대 이상 세대의 위상이 바뀌고 있다. 세계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연령층은 각종 산업의 주요 소비층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산업지도 자체를 바꾸는 힘을 발휘한다.

주식시장에서도 ‘뫼팅 노인’ 취급받던 이들이 ‘그레이네상스(Greynaissance·백발(Grey)과 전성기(Renaissance)의 합성어)’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1~2일 진행된 카카오게임즈 청약에서 1인당 청약 금액이 70대가 가장 많았다.

3일 삼성증권(일반 투자자 공모 물량의 40% ‘128만 주’ 배정)에 따르면

1인당 청약금액은 70대가 3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와 50대가 각각 2억8000만 원, 1억9000만 원으로 뒷순위에 올랐다.

청약 고객 수는 40대(28%)가 가장 많았고, 50대(24%)와 30대(24%)가 뒤를 이었다. 청약 총금액 기준으로 50대가 28%를 차지했고, 40대(23%)와 60대(22%)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청약 채널별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청약고객 비중이 81%에 달했다. 그중 10억 원 이상을 온라인으로 청약한 ‘큰손’ 온라인 고객도 1231명에 달했다. 10억 이상 청약한 전체 고객 중 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주식 투자를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치부하곤 했지만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노년층의 은퇴 후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인당 청약 금액 순위를 고려하면 노년층의 주식시장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 것으로 보인다.

고종민 기자 kjm@

## 위법 아니지만... ‘백지공시’ 속타는 개미

큐로, 수주계약금·상대 비공개 공시... 주가 ‘냉온탕’ 오가

큐로는 2일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를 하나냈다. 화공플랜트 기자재 수주계약인데 ‘경영상 비밀유지’란 명분에 따라 계약 금액과 계약상대방이 모두 비공개인 ‘백지공시’였다.

금액도 상대방도 없는 공시였지만, 업계와 증권업계에서는 “또 까꿍이 공시냐”는 반응이 나왔다. 주식시장은 바로 반응했다. 큐로는 이날 하루동안만 다섯 차례에 걸쳐 주가가 급등락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큐로는 해외 화공플랜트 기자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과 기간, 계약 상대는 비공개 상태로 기재됐다.

이날 큐로는 정적(개별종목 전일종가, 시초가 대비 10% 이상 추가 변동 시 2분 동안 단일가 매매)과 동적(개별종목 직전 체결가 2~3% 벗어나면 2분 동안 단일가 매매)이 다섯 차례를 오가면서 최고 21.99%에서 -1.72%까지 상승과 하락을 보였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약 22배가 급증해 6.87%로 최종 마감했다.

특히 큐로의 최근 매출액 1471억여 원을 계약 금액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나오면

서 시장에 혼선을 빚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큐로가 낸 공시유보는 공시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시유보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시유보 기한이 있는데 이날이 지나면 계약금액, 상대 등을 정정 공시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지나친 정보 접근 제한으로 공시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데다 개인투자자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지공시가 곧 추가 급등으로 이어지다 보니 일부 투자자 중에는 백지공시 재료를 무조건 호재로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계약금액이 역대 최대라더라.”, “상대기업이 세계적 기업이라더라.” 등 카더라 루머에 현혹되기 때문이다.

이에 백지공시를 추가 부양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증시 전문가는 “정보가 적은 개미 투자자들의 막연한 추측성 매매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셀경진 기자 skj78@

## 한국거래소 ‘K-뉴딜지수’ 5종 발표

삼바·셀트리온·SK바이오팜·네이버·카카오 등 포함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SK바이오팜·NAVER·카카오 등이 들어간 ‘K-뉴딜지수’가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기업으로 구성된 ‘KRX BBIG K-뉴딜지수’ 5종을 오는 7일부터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KRX BBIG K-뉴딜지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미래 성장주도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BBIG(배터리·바이오·인더넷·게임) 산업을 뉴딜분야로 선정해 개발했다.

BBIG 산업은 K-뉴딜정책의 핵심분야로, 관련 10개 주요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322조 원(코스피 내 비중 20.4%, 8월말 기준)에 달한다.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KRX BBIG K-뉴딜지수 5종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30% 내외로 약 3% 내외인 코스피지수 대비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KRX BBIG K-뉴딜지수의 경우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NAVER △카카오 △더존비즈온 △엔

씨소프트 △넷마블 △플러비스 등 12개 기업이 포함되고 나머지 지수는 각 10개 기업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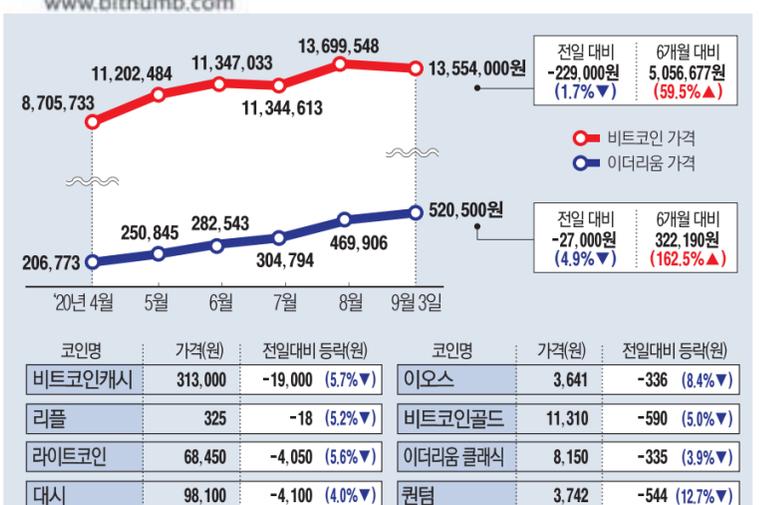
거래소는 지수 발표 이후 ETF의 조기 상장(10월중)을 추진해 시중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 개발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10월중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기업의 사업환경을 친환경·저탄소 기반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각 종목별 산업 특성 및 매출단위당 탄소배출량을 점수화해 탄소효율점수가 높은 기업의 투자비중이 높아지도록 개발된다”고 설명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0년 9월 3일 17: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62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한풀 꺾였다?

# 현실과 동떨어진 '감정원 전세 통계' 불신만 커져

서울 전셋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한국감정원 조사가 나왔다. 감정원 통계를 두고 신뢰성 논란이 거듭되는 와중이어서 시장 체감도는 아직 떨어진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31일 기준(조사 기간 8월 25일-31일) 서울 전셋값이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전셋값 상승 흐름은 62주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률은 지난주(0.11%)보다 둔화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0.16%에서 0.15%로 조금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주간 상승률이 0.1% 아래로 떨어진 건 6월 말 이후 두 달 만이다. 지난달엔 한 달 동안 0.65% 상승하면서 일곱 달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하고 보증금·임대료 증액 폭을 최대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 말 시행되면서 미리 전셋값을 크게 올리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자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는 풍조가 퍼지면서 전셋집 자체도 귀해졌다.

강남 4구 상승률 여전히 가파르고 '은평 뉴타운 엘크루' 등 신고가 행진 "전세품귀 속 코로나로 거래위축 영향" 감정원 적은 표본·조사방법 도마 위

감정원은 "교육 환경이 양호한 지역 또는 역세권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 등으로 거래 활동이 위축되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해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전세를 구하려는 활동이 줄었다"며 "전세 매물 가격 상승률도 전주보다는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고개를 가웃거리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 전세난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기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번 조사만 해도 서울에선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0.01%)을 크게 웃돈다. 거주 여건이 좋은 강동구(0.17%)와 서초·강남·송파구(각 0.13%)에선 여전



히 전셋값 상승률이 가파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감정원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전셋값 상승 폭이 줄어든 기간이 짧은 만큼 둔화를 추세적으로 보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하면 전셋값 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뜻이다.

전셋값 신고가 행진도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엘크루' 전용면적 84㎡형은 2일 5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7월만 해도 이 아파트에선 4억 원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지만 두 달 만에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뛰었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2단지'에서도 같은 날 직전 실거래가(2억8000만 원)보다 9000만 원 비싼 값에 전용 84㎡짜리 전셋집이 나갔다.

이 때문에 감정원이 집계하는 전셋값 추이가 다른 조사 기관이나 시장 체감도와 괴리돼 있다는 불신도 여전하다. KB국민 역시 매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동향을 발표하는데, 감정원에서 내놓은 상승률

과 많게는 7배까지 차이가 난다.

조사 방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정원 주간 조사는 표본 9400가구를 대상으로 취합한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집계하는데, 이는 국민은행이 쓰는 표본(3만4000가구)의 3분의 1도 안된다. 또 실제 계약과 실거래가 신고 사이엔 최장 한 달 동안 시차가 벌어질 수 있어 통계가 시세 흐름을 못 따라갈 수도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근거로 감정원 통계를 내세우면서 감정원 조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차가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감정원도 이 같은 시선을 의식, 내년부터는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에 쓰는 표본 가구를 1만372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관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가격 조사는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오차는 조사 기관별로 5% 이내여야 한다"며 "통계를 호도하는 정치권이 시장의 불신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 "부동산정책 '일방통행' 못참아" 주민 반발

국토부 차관 과천 땅 논란...서울의료원 부지도 개발 잠음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8·4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공급 대상지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내놨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반발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자를 직접 공격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과천시민광장 수호 시민대책위원회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소유한 경기 과천시 과천동 토지와 관련해 감사원에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동 일원 1259㎡ 토지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상지(3기 신도시)에 포함돼 있는 데다 토지 보상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이 단체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8·4 대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3

차례 진행한 바 있다. 국토부가 8·4 대책에서 과천시민광장에 청년행복주택 4000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참여연대에서 박 차관의 과천동 토지 소유 사실을 문제 삼자 8·4 대책 항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공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8·4 대책에 반대하는 건 과천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과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주택 공급 대상지 곳곳에서 지지체장과 시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2일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000호 공급 계획을 철회하라고 국토부와 서울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2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에 반대하는 마포구민들의 목소리도 거세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집회가 금지되자 1인 시위와 빨간 리본 부착 등 새로운 방법으로 항의하는 곳도 늘고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 K-POP과 Musical을 접목시킨 K-POPSICAL 공연, 웃음과 감동을 그대에게 \*\*\*

# K-POPSICAL THE STAGE

더 스테이지

K-POP 아이돌 도전기

CAST

송재호 김동준 서우연 김태준 조도원 지진석 최창욱 유주원 김유연 두리 신준철 권세홍

2020.8.25. 화 - 2020.11.8. 일 대악로 SH 아트홀

[공연시간 평일 20시 / 토 15시, 19시 / 일, 공휴일 15시]

##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보존정비형 재개발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 수정 가결 '명동 제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대선제분 공장 일대가 보전과 개발이 어우러진 방식으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영등포 문래동3가 영등포 대선제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역은 영등포와 여의도 도심 위상에 맞는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201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근대산업유산을 유지하기 위해 보전정비형 정비수법도 도입했다.

보전정비형으로 지정된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은 1936년 건설된 밀가루 공장으로 현재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총 23개 동 가운데 17개 동을 보전형 건축물로 결정하고 건폐율을 완화했다. 문래동3가 16-32일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건립된다. 지상 20층-지하 3층 규모의 건축물에는 주택 132가구와 오피스텔 66실이 건립된다. 19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들어선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구를 지로2가 163-3번지 일대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했다. 이번 결정은 대상 지역 내 역사 문화 자원인 향린교회와 보습빌딩에 대한 역사자원의 가치와 보존계획을 담았다. 이곳은 1983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정용욱 기자 dragon@

# 법정서 진실 밝히겠다던 조국 정경심 재판서 모든 증언 거부

##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 증인 출석

조국(55·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 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도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검찰은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증언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밖 행위가 언론이 검찰 주장만 보도하는 것의 반론 차원이었다

면 오늘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힐 수 있도록 최대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은 자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조 전 장관도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만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서 출석한 것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이다.

김종용 기자 deep@

# 국세청, 국내 이어 美 신천지 세무조사

## 캘리포니아 소재 시온한인교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말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신천지 12개 지파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하고 있는 시온한인교회(california zion church)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시온한인교회는 미국 내 신천지 교회 중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주로 대학교 캠퍼스를 돌며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과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신천지 교회를 세무조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달 중순부터 시온한인교회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시온한인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국내에 분포하고

있는 신천지 12개 지파 이외에도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무를 요구한 로펌 관계자는 “국세청이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교회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수 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도 이 과정에서 해외에 소재한 교회의 불투명한 자금이 포착, 조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종교단체의 경우 국내에서 선교 또는 포교활동 명목으로 해외로 돈을 송금했다더라도 증빙이 어렵지만, 만일 개인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 또는 불법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역외탈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총회장은 비공개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변호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강풍에 무너진 풍력발전기 3일 경남 양산시 에덴밸리 리조트 인근에 있는 풍력발전기 한 대가 파손돼 있다. 양산시는 전날 태풍 ‘마이삭’이 이 지역을 관통하면서 발전기 한 대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1명 사망자 낸 ‘마이삭’... 내주 초 더 센 태풍 온다

## 신고리원전 4기 멈추기도 ‘하이선’ 한반도 관통 예상

3일 새벽 우리나라를 지나간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1명이 숨지고 2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주택, 농작물 등 시설·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신고리원전 4기가 운영 중지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삭보다 센 제10호 태풍인 ‘하이선’이 다음 주 초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이어서 인명·재산 피해는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마이삭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오전 1시 35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풍에 배란다 창문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을 맞아 다친 60대 여성이 숨졌다. 오전 3시 17분께는 부산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깨진 유리창에 발등을 다쳤다.

이재민은 강원, 제주, 부산, 경남 등에서 21세대 26명이 발생했다. 시설·재산 및 정전 피해도 잇달았다. 현재까지 보고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는 각각 295건, 563건이다. 사유시설의 경우 주택침수 28건, 주택파손 76건, 차량침수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벼 쓰러짐, 낙과, 발작물 침수 등 농경지 피해면적은 5151헥타르(ha)

로 잠정 집계됐다. 정전 피해를 겪은 가구는 모두 27만8601가구에 달했다. 또 초강력 태풍에 신고리원전 4기의 운영이 이날 0시부터 차례로 일시 중지되기도 했다. 외부 전원 이상에 따른 자동 정지로 방사성 물질 유출은 없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 태풍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역대 4위의 최대풍속(초속 45.0m)을 기록한 마이삭보다 태풍 세기가 큰 하이선이 한반도로 북상 중이기 때문이다. 하이선의 세기는 4일에 매우 강한 태풍으로 점차 발달하고, 7일께 경남 해안 상륙해 한반도 중앙을 따라 올라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檢 ‘삼성 수사팀’ 공소 유지에 투입

## 하반기 인사에 인력 재배치 잔류 8명 특별공판2팀 배치

검찰이 삼성 합병 의혹 사건을 수사팀 중 서울중앙지검에 남은 검사를 모두 공소 유지에 투입한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하반기 검사 인사에 따른 이같은 내용의 수사 인력 재배치 현황을 발표했다.

검찰은 삼성 합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제범죄수사부 소속 잔류 검사 8명을 특별공판2팀으로 배정했다. 지방청으로 전출된 수사팀장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 검사는 공판 기일에 참석한다. 이에 따라 특별공판 2팀은 팀장인 김영철 부장검사를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꾸려진다.

새로 구성되는 경제범죄수사부는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배치한다. 더불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팀도 전출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6명을

모두 재판에 투입한다. 특별공판 1팀에 4명을 보내고,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 25부와 21부에 각각 1명씩 공판 검사로 발령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공공수사 2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기존 인원은 김태은 부장검사까지 모두 10명이었지만, 이 중 김 부장검사를 포함 6명이 전보나 휴직을 해 5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추가 배치된 검사 중에는 울산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초기에 맡았던 검사도 포함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공범으로 의심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신임 변별권 형사1 부장이 수사를 이어간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남은 검사 4명과 복귀 인원 1명까지 총 5명을 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기자 pgy@

# 서울시 도시계획위 ‘스마트 회의’ 전환

## ‘3차원 환경 비추얼 서울’ 도입 시뮬레이션 확인·양방향 회의

서울 시내 도시·건축 관련 계획을 심의·자문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회의’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에 특화된 ‘스마트 회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도계위는 1949년 구성된 이후 줄곧 종이 문서나 개별노트북으로 안건을 심의했다. 이 때문에 안건이력, 대상지 현황, 경관 시뮬레이션, 교통·환경영향 같은 다양한 심의 정보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3차원 환경의 비추얼 서울’을 위원회 기능으로 도입했다. 안건을 입체적으로 확인, 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도 이뤄진다. 심의단계



에서부터 비추얼 서울을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하고, VR(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해 대상지 일대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회의 중 스마트보드에 직접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설명하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양방향 회의시스템’도 갖췄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의 미래 100년 도시경관을 바꿀 창의적인 도시·건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위원회 운영 시스템 혁신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 도시·건축의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항소심 11월 결론

‘드루킹’ 김동원 씨와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1월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는데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특검은 당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

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댓글에 공감함을 클릭한 것을 말한다.

김 지사 측은 역작업을 근거로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전체 댓글 가운데 역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해 드루킹 일당의 실수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에게 선고 1개월 전인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용 기자 deep@

# “잘만 배운다면... 모터사이클은 ‘가장 안전한 일탈’”

## 윤수녕 모터워드 대표

최근 신중년의 로망으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모터사이클이다. 육중한 배기량의 고성능 엔진에서 나오는 무게감과 힘을 갖춘 바이크로 국도를 달리며 산하를 감상하는 경험은 남다른 중독성을 갖게 해 많은 이들을 모터사이클의 신세계로 뛰어들게 하고 있다. 윤수녕 강원모터사이클연맹(KMF) 회장 겸 모터워드 대표는 척박한 국내 모터스포츠계에서 나침반 역할을 하며, 선진문화의 도입과 안전교육을 추구하는 모터스포츠 전문가 1.3세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모토피스타’ 강원도 인제 행사를 앞둔 그를 만나 꾸준한 성장을 이뤘다가 있는 국내 모터사이클 세계를 슬라이딩해봤다.

최근 국내 모터사이클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은 강원도 인제군이다. 아는 사람은 이미 알겠지만 이곳에 모터스포츠 경주장인 인제스피디움이 있기 때문이다. 모터워드는 모터사이클과 스포츠카로 가능한 레저와 스포츠 활동 사업을 하는 회사로, 윤수녕 대표는 이곳 인제스피디움에서 이륜차 마니아를 위한 기초 리그인 로드레이스 모토피스타와 강원 인제 모토피스피드페스타라는 이륜 라이더 축제 등 다양한 경기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크를 탄 지 어언 30년째라는 그에게 바이크의 매력에 대해 묻자 단숨에 ‘도심 탈출’이라고 정의했다.

“현대인의 일상은 어딘가에 갇혀 있거나 카테고리화 정해진 반복된 삶이죠. 그런 삶에서 빠져나와 일탈이라든가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가 바로 모터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현대인의 일탈이라고 하면 음주나 유흥이나 레저 등을 떠올리겠지만 그에 비해 훨씬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게 모터사이클이죠. 자신이 있는 위치를 이동시켜주니까요.”

윤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모터사이클은 확실하게 배우고 안전을 확보해 취미로 제대로 접하면 그 어느 것보다 빠른 도심 탈출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두세 시간이면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 파묻힐 수 있는 게 사실이니, 그의 말이 머릿속으로 훑 들어왔다.

### 모터사이클은 종합예술과 같다

윤 대표가 말하는 모터사이클의 또 하나의 강점은 개방감이다. 달리는 맛이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를 탈 때는 사각의 틀 안에 갇히지만 모터사이클은 바람을 맞는 맛이 있어요. 온몸이 그걸 인지하죠.”

그의 설명을 듣다 보니 우리가 흔히 모터사이클을 봤을 때 떠올리는 피지컬적인 면보다는 멘탈적인 면이 더 강하게 와 닿았다. 그 또한 국내 모터사이클 문화를 선도하면서 수많은 선수를 발굴했는데, 그 과정에서 체력 단련을 통한 피지컬의 증량보다는, 이 무생물과 교감하면서 마인드컨트롤을 잘 해서 사고 없이 경기를 해쳐 나가는 게 더 중요 포인트라고 강조한다고.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루 종일 정신교육만 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가 인터뷰 내내 강조했던 것도 바로 안전이다. 모터사이클의 특성상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단번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으니 당연한 일이지 않나.

“유치원, 고등학교가 아니라 40대 전후 어른들이 주로 배우러 오시죠. 그 정도 나이의 사회적 포지션이면 남의 말 듣기가 쉽지 않지만, 모터사이클은 정말 배워

야 하는 스포츠예요. 컨트롤하고 정비하고 좋은 컨디션 유지하게끔 계속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성도 들여야 하고 비용도 드는 복합적인 스포츠죠. 예술로 치면 오페라나 뮤지컬처럼 종합적인 스포츠예요. ‘야 빠르다’ 하는 건 일반적인 시선이고 들여다보면 현연일체적인 게 있고, 정식 경기장에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기를 올려야 그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 인제스피디움 발판으로 모터스포츠 문화 정착 추구

윤 대표가 말하는 정식 경기장이란 당연히 인제스피디움이다. 그가 특히 애착을 갖고 있는 이벤트는 ‘모토피스타’. 국내 아마추어 선수가 로드레이스에 입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기로 피스타는 이탈리아로 질주, 경주란 뜻이다. 시즌 포인트로 연간 챔피언을 뽑으며 강원모터사이클연맹 산하의 모토피스타는 매년 4라운드 진행된다. 윤 대표가 인제스피디움을 배경으로 펼쳐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중 하나다.

“10년 전만 해도 경기장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일이지만 쉽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균형 감각이예요. 피지컬은 서양 사람만 못해도 훨씬 더 균형 감각이 있어 모터스포츠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죠. 처음엔 굉장히 허박하다가 이걸 스포츠로 받아들이고 아카데미에서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보고, 한국적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결심한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사실 다수의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대로 인제스피디움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상당한 진동이 있었다. 이해관계가 얽힌 기관과 단체들 사이의 갈등으로 몇 년간 잡음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일종의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외부인사로서 인제스피디움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었고, 당사자들 간의 교섭을 이끌어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다.

### 라이더들이 ‘시원하다’고 말하는 이유

레저용으로 쓰는 바이크는 250cc 이상이다. 우리나라에서 250cc 이상 되는 바이크의 등록 대수를 보면 10년 전만 해도 3만 대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15만 대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통계만 봐도 레저로 바이크를 즐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레저용 바이크는 고가의 상품이라 사회적 포지션이 높고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죠. 흔히 크고 시끄럽고 손 가는 게 많다고 생각해 배우기를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내시라, 도전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배우면 안 다치고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가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을 보면서 알게 된 흥미로운 점이 있다. 보통 예민한 사람들이 바이크를 타고 오면 ‘시원하다’고 말한다는 거다. 그런데 온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모터스포츠다.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사고라도 날까봐 온갖 신경을 다 쓰는데 그러면서도 뭔가가 해소된다는 거죠. 집중이



바이크 인생 어언 30년  
가장 큰 매력은 ‘도심 탈출’  
수강자 대부분 40대

체력보다 마인드컨트롤 중요  
첫 수업은 ‘정신교육’  
정성·비용 다 드는 복합 스포츠

소유한 바이크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아버지와 서울서 유럽까지  
함께 달리는 게 꿈이죠

집중을 치유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와서 스트레스를 푸시고 갑니다. CEO나 교수, 의사, 디자이너, 연구원, IT 분야 종사자들이 많아요.”

### 바람처럼 바이크를 타며 인생을 향유하다

바이크 타는 아버지를 보고 배우며 타다가 라이더가 된 윤 대표. 모터스포츠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했을까? 그는 “의외의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하고 전제를 깔았다.

“지극히 개인적 얘기지만 명상 쪽에 몰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명상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매인 삶이 모터사이클로 탈출하는 것과 비슷하죠.”

과연 일맥상통하는 얘기라 생각했다. 일찍이 미국의 대학교수이자 작가인 로버트 피어시그는 모터사이클과 선 체험 간의 교차점을 탐구한 소설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을 집필해 명작의 반열에 올린 바 있다. 윤 대표는 모터사이클을 “보이는 바람의 영혼”이라고 표현했다. 정신적인 자유가 거기에 있고 그 사람의 정신 세계 또한 거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한 바이크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빠르고 강하게 타는 게 아니라 고독한 바람같이 타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 바람이 산들바람일 수 있고 강풍일 수도 있는데 자연과 동화된다는 의미죠. 뭔가가 나갔는데 아무렇지 않고 산등성이에서 새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대형 바이크를 타고 1·2차선을 넘나들며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문화를 알면 달라질 것이라는 게 그의 바람이다.

“이제는 강원도 인제 전역의 아름다운 곳, 산하 등 그런 곳들을 이동하는 도구로서의 바이크가 문화로 정착해야 한다고 봐요.”

### 부자(父子)가 함께하는 모터사이클 투어 꿈꾼다

사실 윤 대표의 아버지도 아들처럼 모터사이클 마니아다. 스위스 알프스부터 터키, 스페인 등 전 세계를 무대로 라이딩을 하는 아버지를 둔 그가 모터스포츠 세계에 입문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아버지 건강이 허락되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실크로드를 달리고 유럽까지 가는 대장정을 함께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못 가지만... 9월에 강원도 전역에서 하는 평화 모터사이클 랠리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도 이제 50대에 이른 만큼 나이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한다.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별판 같은 경기장에서 일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드를 향한 그의 의지와 사명감은 쉬이 꺼질 것 같지 않다.

“필드 플레이어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긴 하죠. 하지만 건강관리를 하면서 되도록 오래할 생각이예요. 아버지도 내일모레 여든이신데 현역이신걸요. (웃음)”

바이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면 불행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것을 모르고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깨달을 때쯤 사내 윤수녕 대표가 멋진 라이더로서 있었다.

글/김영순 기자 kys0701@  
사진/홍상돈 프리랜서  
photohong1@hanmail.net





## 전체 77%가 수시모집... 상위권 '학종' 노려볼만

올해는 전체 모집 인원(34만7447명)의 77%인 26만7374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올해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이다. 전체 모집인원의 42.3%인 14만 6924명이 선발된다. 내신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학생부교과전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위권 서울 소재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수험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노려볼만 하다. 학종은 이번 수시에서 대학 전체

모집인원의 24.8%인 8만6083명을 선발한다.

올해 수시 주요 일정에서 가장 눈에겨보아야 할 것은 대학별고사 일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01개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논술, 실기면접 등의 수시 일정을 변경했다. 코로나19 변수가 있는 만큼 지원 전 반드시 각 대학의 최종 모집요강 및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수시 원저 접수는 9월 23일부터다. 손현경 기자 son89@

## 교사추천서 폐지... 비교과 평가 코로나 반영



경희대학교는 2021학년도 입시에서 전체 모집인원(5209명)의 70.3%인 3661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이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 2641명 △논술우수자전형 684명 △실기우수자전형 336명을 올해 수시로 뽑는다. 지난해 수시모집 대비 주요변경사항으로는 △수시 인원 소폭 감소(학종 1.9% 축소·50명 감소, 논술우수자전형 4.2% 축소·30명 감소) △학종 교사추천서 제출 폐지 △의학계열 면접 시간 단축(30분→25분) △일부 학과의 학과명 변경(자율전공학부, 미디어학과,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 유전생명공학과, 한방생명공학과)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입전형계획



안이 소폭 수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학종 서류평가에는 출결, 봉사 등 비교과 활동 평가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성평가하고 논술우수자전형과 실기우수자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을 면접 처리해 반영할 계획이다.

## 학생부위주 94.5%, 실기 전형 187명 뽑아



고려대학교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3418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위주전형으로 3231명(94.5%), 실기위주전형으로 187명(5.5%)을 선발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과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학업우수형·일반전형-계열적합형·기회균등)으로 나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일괄선발로 학교생활기록부(교과) 60%와 서류 20%, 면접 20%를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교과성적을 정량평가해 60% 반영하는 전형인 만큼 각 고교에서 학업을 성실하게 이수해 온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설명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해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종합 평가한다. 정성평가인 만큼 학생부 분량이나 특정 활동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지원자의 차별화된 강점이나 개별적 특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23~25일까지다.

## 단과대학 통합 선발... 학생부 100% 173명



덕성여자대학교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선발 인원(1098명)의 63.6%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해 총 698명을 뽑는다. 올해 수시모집에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 반영 시 학년별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덕성여대는 지난해와 같이 2021학년도에도 유아교육과와 약학과를 제외한 신입생 전원을 단과대학 단위로 통합 선발한다. 신입생들에게 1년 동안 충분한 전공 탐색의 기회를 가지며 융복합 기초 역량을 다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은 덕성인재전형 204명, 사회기여자전형 7명, 농어촌학생전형 37명, 희망나눔전형 4명으로 총 252명을 뽑는다.



논술전형으로는 210명을 선발하며 논술고사 80%와 학생부 20%를 반영한다. 학생부 100% 전형으로는 173명을 모집한다.

논술전형과 학생부 100%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단과대학별로 반영하는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7~8 이내여야 한다.

## '상명인재전형' 서류·블라인드 면접 시행



상명대학교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 중 68.2%에 해당하는 2039명을 선발한다. 이 중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83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대표전형인 '상명인재전형'에서만 서류평가와 면접고사를 시행한다. 면접고사는 블라인드면접으로 이뤄진다. 이 외의 학종에서는 서류평가만으로 진행된다.

학종은 교과 성적을 기계적으로 산출해 점수화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비교과 내용,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모집단위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한다.

서울캠퍼스 26개, 2캠퍼스(천안) 17개 모집단위에서 총 699명을 모집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은 2016년 2



월 이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교생활기록부 3개 학기(졸업예정자 4개 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과 성적 산출이 가능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실기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애



서강대학교는 2021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으로 1110명, 정시모집에서 477명 등 총 1587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으로만 모집한다. 전형별로 △1차 434명·2차 323명 △SW우수자 16명 △고른기회 60명 △사회통합 42명(이상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235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 1차 전형은 모집전공별로, 2차 전형은 모집단위별로 선발한다. 두 전형 간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서류평가요소는 지난해 4개에서 3개 항목으로 줄었다. 2021년도는 '지(학업역량),



'정(인성), '의(성장가능성)를 평가한다.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필수 서류로 활용한다. 평가요소별 비율은 학업역량 50%, 인성 20%, 성장가능성 30%다. 논술전형에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다.

## 시각디자인 일부 인원 학생부전형 첫 선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21학년도 입학 전체 모집인원 2358명의 약 65%인 1525명을 수시에서 모집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 409명(26.8%) △학생부종합전형 776명(50.9%) △논술 전형 269명(17.6%) △실기전형 71명(4.7%)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학종에는 대표 전형인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을 비롯해 소프트웨어인재전형, 고른기회전형이 있다.

2020학년도에는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교과100%)의 경쟁률은 6.5대 1 수준이었으며,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의 경쟁률은 10.4대 1로 2019학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학생부위주전형 중 하나의 전형과 논술전형을 같이 지원하는 전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서울과기대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전형과 주요 학종인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의 모집인원이 소폭 감소했다. 학종 2단계 면접고사 비중은 기존 30%로 유지되며, 처음으로 시각디자인전공 일부 인원을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3~28일까지다.



### 전체 인원 68% 수시모집... 논술우수 532명



성균관대학교는 전체 모집인원 3566명(정원 외 포함) 중 68.4%인 2441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전형별로 △학생부종합전형 1803명 △논술우수

전형 532명 △예체능 특기자전형103명을 각각 모집한다. 학종은 '계열모집' (655명)과 '학과모집' (915명), '고른기회' (40명), '정원외 특별전형' (193명)으로 나뉜다. 계열모집은 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로 선발한다.

학과모집은 6개 모집단위를 제외하고 서류 100%로 선발한다. 2단계에서 1단계 서류성적

(80%)과 면접(20%)로 선발한다. 계열모집은 5개 모집단위에서 광역선발해 1학년에 전공탐색 시간을 갖고, 2학년에 학과단위 진입을 하게 된다. 계열모집, 학과모집 모두 수능최저학력기준 및 수능필수영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성균관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수시 논술위주전형 및 예체능 실기/실적위주 전형 등에서 세부 운영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각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을 원서 접수 이전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시각·영상디자인과 면접 폐지... 1단계 10배수



숙명여자대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 2120명 중 1437명을 수시로 선발한다.

올해 사회기여 및 배려자전형을 폐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기회균형선발은 고른기회전형으로 통합해 67명을 선발한다. 예능창의인재전형 중 시각·영상디자인과 면접이 폐지되고 1단계 선발 인원을 기존 6배수에서 10배수로 늘린다.

논술 우수자는 논술시험 70%와 학생부(교과) 30%로 300명을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인문·자연계열 모두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로 전년도와 같다. 탐구영역 선택 시 2개 과목 중 상위 1개 과목만 활용하도록 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 반영 교과의 석차 등급을 이수 단위로 가중 평균한 환산석차등급을 활용해 244명을 뽑는다. 숙명인재전형은 숙명인재I(서류형) 423명, 숙명인재II(면접형) 230명을 각각 선발한다. 면접 심사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 기회균형선발, 학종으로 수시 전환



성신여자대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을 2275명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위주전형으로 1161명을 선발한다. 고른기회전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정사에서 선발하던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 선발한다.

올해부터 학교생활우수자전형과 고른기회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일괄 선발한다. 자기주도인재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으로 진행된다. 교과우수자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변경됐다. 국어, 영어, 수학(가·나), 탐구 상위 과목 중 2개 영역의 합이 인문계열은 6등급 이내(영어영역



포함 시 5등급 이내), 자연계열은 7등급 이내(영어영역 포함 시 6등급 이내)인 경우에만 합격할 수 있다.

논술 전형은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교과우수자전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자연계열 과학논술 없애...SW 특기자전형 확대



송실대학교가 2021학년도 전체 모집인원 3080명 가운데 66%인 2027명(정원의 포함)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송실대 수시모집의 특징은 △학생부우수자전형 모집인원 확대(475명→479명) △논술우수자전형 모집인원 축소(296명→292명) 및 자연계열 과학논술 폐지 △SW 특기자전형 모집인원 확대(21명→25명) △예체능우수인재전형(골프) 폐지 및 예체능우수인재전형(체육) 신설 등이다.

송실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전형인 SSU미래인재전형은 728명을 선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다.



학생부우수자전형으로는 479명을 선발한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전년도와 같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열 국어, 수학(나), 탐구(2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6등급 이내, 자연계열 국어, 수학 가형, 과탐(2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7등급 이내다. 송실대는 수시모집 원서를 이달 24~28일까지 접수한다.

### 삼성전자 협업 '시스템반도체학과' 특별전형



연세대학교는 2021학년도 입학정원 3431명 중 수시모집으로 2211명을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 1664명 △논술 전형 384명 △특기자전형 163명 △정원외 전형으로 185명이다.

올해 학종에서는 모집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전년 대비 573명이 증가한 1664명을 선발한다. 활동우수형은 768명, 국제형은 293명을 선발한다.

면접형은 고교 다양성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증가한 523명을 선발하며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학교별 3학년 재학생 수의 3%)으로 지원자격이 개편된다.

연세대는 시스템반도체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특별전형을 신설한다.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삼성전자와 협업한 계약학과다. 정원외로 총 50명(수시 40명, 정시 10명)을 선발한다.

연세대는 전년도처럼 수시모집 모든 전형(특기자전형 체육 인재 제외)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학종 추천서 폐지... 역대 최대 914명 선발



이화여자대학교는 2021학년도 전체 모집 정원 3036명 중 68.6%인 2085명을 수시로 모집한다.

그 동안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제출을 요구했던 추천서가 폐지됐다. 학종은 올해 역대 최대 인원인 914명(미래인재 844명, 고른기회 55명, 사회기여자 15명)을 선발하는데, 면접 없이 서류 100%로 평가한다.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이 교과 80%, 면접 20%로 일괄 합산해 선발한다. 지원자 전원 면접을 실시한다.

논술전형은 학생부 30%와 논술 70%로 구성한다.



이화여대 측은 "(논술은) 지원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전형이지만 수능 이후에 실시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많이 하락할 것"이라며 "경쟁률에 긴장하기 보다 본인 적합 정도를 판단해 소신있게 지원하게 좋다"고 설명했다.

### 학생부위주전형, 면접없이 서류 100% 선발



중앙대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을 4919명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선 전체 모집인원 69%에 해당하는 3383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1536명은 정시모집에서 뽑는다.

수시 선발 인원 가운데 64%인 2169명은 학생부위주전형(교과·종합)으로 선발하는데 면접없이 서류 100% 전형이다. 서류평가에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활용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논술전형에서는 수시모집의 24%인 808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논술 60%, 학생부 40%를 본다. 인문사회계열은 언어논술 3분항, 경영경제계열은 언어논술 2분항·수리논술 1분항이 출제된다. 자연계열 논술은



수학 3분항,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원서접수 시 택1) 1분항이 출제된다.

중앙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논술·학생부교과·실기전형 지원자 전원에게 봉사활동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4주 지속 살충력!



비오킬 500mL (가정용)

# 우리집 해충 박멸엔 비오킬

● 4주 지속 효과! ● 침구류에도 OK! ● 무색무취! ● NO 프레온가스!

비오킬은 인체와 환경을 생각하는 선진국형 저독성 살충제입니다  
특수 코팅된 원료로 햇빛, 높은 온도, 습도에 안정하며, 분사 후 4주 동안  
지속적인 살충효과를 나타냅니다.

바퀴벌레, 파리, 모기, 빈대, 벼룩, 쥐이, 진드기, 좀벌레, 개미의 구제

# “빅데이터 기반 건강관리부터 직업병 예방까지”

SK하이닉스 안전보건팀 문형일·선행연구팀 이경호 TL

### 2014년 산업보건검증위 권고로 JEM 시스템 구축·운영 반도체 사업장 화학물질 현황은 물론 노출 이력까지 관리

“JEM 시스템에 모인 기록은 나만의 ‘근무 이력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쌓인 데이터들을 초석으로 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JEM(Job Exposure Matrix) 시스템 구축부터 운영, 관리까지 맡는 SK하이닉스 안전보건팀 문형일 TL(기술·재능 리더), 선행연구팀 이경호 TL이 가진 목표다. SK하이닉스가 운영 중인 JEM 시스템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최초로 도입된 빅데이터 기반 작업환경 노출 정보 관리 시스템이다. 사업장 내 다양한 안전·보건 분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구성원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는 물론 직업병 예방까지 책임진다.

JEM 시스템이 구축된 건 2014년 외부 전문가 7인과 노사 대표 4인으로 구성된 ‘산업보건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직업병 의심사례로 꼽히는 구성원 및 협력사 지원보상이 수동적인 사후 대응이었다면, JEM 시

템은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직업병 발생 가능성 자체를 낮추고자 추진됐다.

JEM 시스템 하에선 반도체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현황 파악은 물론, 직무별 노출 이력까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이를 통해 관리자들은 요약된 구성원 종합 직무 노출 정보는 물론, 이전과 청주 사업장 내 각 생산라인과 단위공정별 화학물질 상세 리스트를 조회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 문형일 TL은 “전산화된 데이터 허브를 통해 빠지는 정보 없이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하는 것이 JEM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반도체업계에서 선례가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구축단계에선 시행착오가 많았다. 이경호 TL은 ‘각종 용어와 규격에 대한 표준화 과정’을 난관으로 꼽았다. 그는 “동일한 단위공정에서도 부서 혹은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



SK하이닉스 JEM(Job Exposure Matrix) 시스템 구축부터 운영, 관리까지 맡고 있는 SK하이닉스 안전보건팀 문형일(왼쪽) TL과 선행연구팀 이경호 TL

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수백 개의 직무 유형을 물리·화학적인 노출 위험도에 따라 18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았다.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양보다 더 많은 JEM 데이터가 쏟아져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 TL은 “시스템 개발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으며, 사용자 관점에서 기능 보완과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러 우려곡절을 겪었지만, 국내 기업 최초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표준을 만든 보람을 느낀다고 두 사람은 입을 모았다. 이 TL은 “외부 학회에서 SK하이닉스의 JEM 시스템이 기업의 선제적인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례로 뽑혀 학자들의 관심을 받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노우리 기자 we1228@

### 베이조스 세계 최고 부자 이어 전처 매켄지도 ‘여성 부자 1위’



미국 증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기술주에 힘입어 세계 여성 부자 순위도 바뀌었다. 아마존닷컴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사진 왼쪽)의 전처 매켄지 스퀫(오른쪽)이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아마존 주식 덕에 세계 여성 부자 1위에 올랐다. 세계 전체 순위로는 12위다.

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분석 결과, 매켄지의 자산은 총 680억 달러(약 80조7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혼 합의금으로 베이조스에게서 아마존 지분 25%를 받을 당시만 해도 350억 달러이던 가치가 1년 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특수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아마존 주가는 올해만 90%가량 뛰었다.

매켄지는 이혼 당시 합의금 덕분에 세계 여성 부자 4위에 이름을 올렸었다. 올해 초 17억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도 아마존 주가 급등에 힘입어 아예 1위 자리를 거머쥔 것이다. 지난달 베이조스 역시 아마존 덕에 개인 자산이 세계에서 최초로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부의 지도에 이정표를 세운 바 있다.

한편 매켄지는 지난해 ‘기빙 플레지’에도 서명하는 등 기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기빙 플레지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빌앤멜린다게이츠가 2010년 설립한 단체로 생전에 자신의 재산 중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억만장자들의 모임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일본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유명인사 200명이 동참했는데, 매켄지와 달리 베이조스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테이 스트롱’



코로나19 극복과 조기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참가한 신현우(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SK가스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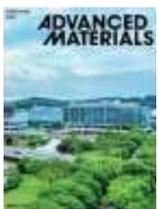


SK가스는 운영석 대표가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윤 대표는 2일 SK가스에서 후원하는 성남, 울산, 평택에 있는 복지관 9곳에서 근무하는 복지사 등 관계자 130여 명에게 공기정화 식물을 보냈다.

### 저명 국제학술지 ‘머터리얼즈’ KAIST 개교 50돌 특집호 내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유명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가 내년 2월 개교 50주년을 맞는 KAIST의 인공지능·바이오·차세대 반도체 등 혁신 기술을 집중 소개하는 50주년 기념특집호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소재공학과 이진재 교수가 편집장으로 참여한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 9월 특집호에서는 재료·인공지능·전자·생명공학 등 미래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KAIST 교수 17명의 리뷰논문과 함께 세계적인 과학기술 선도기관으로서의 연구전략을 집중 조명했다. 이재훈 기자 yes@



### 급류 속 인명 구하다 순직한 김국환 소방장 등 ‘LG 의인상’

LG복지재단은 폭우로 물이 불어난 계곡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故) 김국환(29·사진) 소방장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순천소방서 소속 고 김국환 소방장은 지난 7월 31일 오후 전남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피서객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피아골 계곡은 구례군 일대에 일주일 이상 이어진 폭우로 거센 물살이 일고 있었지만, 김 소방장은 안전 장구를 착용한 뒤 구조를 위해 망설임 없이 계곡으로 뛰

어들었다. 김 소방장은 필사적인 구조 작업 중 몸에 묶은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급류에 휩쓸렸고, 18분 만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순직했다. 고인은 2017년 119구조대원으로 임용된 뒤 3년간 1480회 사고현장에 출동해 540명을 구조한 탁월한 활약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재단은 폭우현장과 하천, 바다에서 이웃의 생명을 구한 시민 5명에게도 각각 LG 의인상을 전할 예정이다. 최보석(43)와 손성모(37)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폭우로



전남 구례군 서서천 제방이 붕괴하면서 마을이 물에 잠기자 낚시 보트를 이용해 고립된 주민 40여 명을 구조했다. 육군 102기갑여단 박승현(24) 하사는 지난달 13일 삼척시 근덕면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린 인명을 구조했다. 문명근(51) 씨는 지난달 19일 울산광역시 북구 동천강에서 익사 위기의 초등학생을 구조했다. 김군삼(47) 선장은 지난달 20일 새벽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바다에 추락한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밀양 낙과 피해 농가 찾아

### “태풍 피해 복구·농업인 경영안정 총력 지원”

김현수(사진 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경남 밀양 사과 낙과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농가를 격려했다.

김현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업재해 대책상황실에서 9호 태풍 ‘마이삭’ 피해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태풍 종료 후 신속히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응급복구 방안을 바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김 장관은 오후에는 경남 밀양 사과 낙

과 현장을 점검하고 “가공용 등 낙과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재해보험금 지급 등 경영안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10호 태풍 ‘하이선’이 다음 주 초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임을 감안 3일부터 6일까지 농업부문 피해예방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합

### 백순명 연세의생명연구원장 테라젠바이오, CTO로 영입

테라젠바이오는 백순명 연세의생명연구원장을 연구소장 겸 R&D기술총괄(CTO)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연구소장은 1981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병리학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중앙내과 펠로우(전임의), 미국 조지타운대 의대 교수, 미국 국립유방암대장암임상연구협회 병리과장, 삼성암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인사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 지중철
-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수산자원정책과장 고승주
- ◆국세청 <전보>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문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 임광현 △부산지방국세청장 임성빈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청룡 △광주지방국세청장 송기봉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이현규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진현 △ 전산정보관리과 오덕근 △ 감사관 박진원 △ 국제조세관리관 김동일 △ 징세법무국장 정철우 △ 개인납세국장 김창기 △ 법인납세국장 강민



개 사전대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0호 태풍이 내습하기 전까지 전체 농업 저수지의 수위조절 및 안전점검, 산사태 예방조치 및 피해 우려 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신속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부음

- ▲김사연 씨 별세, 이낙규(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씨 모친상 = 3일, 안양 샘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6시, 041-589-8102
- ▲백옥인(전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씨 별세, 백형태(메디스 신경정신과원장) 씨 부친상, 백석호(재미 사업) 씨 형님상 = 3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일 오전 5시, 02-860-3502
- ▲송효식 씨 별세, 송병선(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씨 부친상 = 3일, 설낙원 김포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5일 오전 10시, 031-449-1009
- ▲박영철 씨 별세, 강동영(대한유도회 사무처장) 씨 장인상 = 3일, 경기도 포천 우리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30분, 031-542-0222
- ▲김건일(전 문인협회 부이사장) 씨 별세 = 3일, 삼육서울병원장례식장 13호실, 발인 5일 오전 11시, 02-966 8883
- ▲유영조(전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장) 씨 별세, 유민정(포스코건설 차장) 씨 부친상, 김재현(크리스탈지노믹스 부장) 씨 장인상 = 3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17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02-227-7590
- ▲정형기 씨 별세, 정수연·김태·복연·수영·상태 씨 부친상, 김주민(가나건강대표)·반성석(익산남전교회목사)·이창민(문화일보 편집부 차장) 씨 장인상 = 2일, 광주 송정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11시 30분, 062-941-4400

### 조석의 遠見明察

(원건명찰)



현대일렉트릭 사장

아직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하기에 육지에서 보내주는 전기에 의존해야지만 언젠가는 제주의 바람과 태양이라는 자연 에너지가 이곳을 새로운 시간으로 안내해 갈 것이다. 지금도 이곳에는 렌터카와 택시 중 많은 차량이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 자동차이다. 이제 제주도는 탄소 제로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섬이다. 이곳에 올 때마다 이 섬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제주의 자연은 봄의 유채꽃에서부터 초겨울의 감귤 농장 그리고 눈꽃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겨울의 한라산까지 어느 하나 빠트릴 수가 없다.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하는 광활한 바다와 지금은 쉬고 있는 화산의 신비로움이 항상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준다. 영화 '지슬'에서 볼 수 있는 이곳의 역사마저도 시간의 궤적으로 스며들어 오늘의 제주로 살아난다. 영화는 해방 직후 이념의 갈등과 한라산 기슭에서 따뜻한 지슬(감자의 제주도 방언)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나에게 제주는 '올레길'이 생기기 전과 생김 이후로 나누어진다. 걷기의 맛에 빠져들기 전에는 제주에 올 일이 많지도 않았고, 오더라도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제주 올레를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에게 제주는 자신을 뒤돌

아보고 마음의 아픔을 씻고 가는 힐링의 장소로 변했다. 나의 첫 올레 걷기는 2011년 봄이었으니 '올레길'이 처음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났을 무렵이다. 지금으로부터 13년여 전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진 '올레길'은 제주도 말로 '동네 작은길'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아름다움을 상대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제주의 산과 바다는 자연 그 자체만으로도 2000년 역사를 가진 스페인의 그 길 못지 않다. 더욱이 제주에 얽힌 시간의 궤적을 따라서 삶의 순례를 하게 되는 아름다운 길이다. 처음 올레를 걸은 이후로 나는 삶의 중요한 고비에 접할 때마다 이곳을 찾았다. '올레길'을 숨이 차게 걸으면서 비워지는 마음을 통해 잊고 있던 자신의 본 모습을 만났고, 덕분에 마음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었다.

제주도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한라산은 남쪽으로부터 다가오는 태풍을 막아 육지로 가는 피해를 피하게 하는 반도의 방어

벽이기도 하다.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에는 육지의 문명을 맛보기가 쉽지 않았을 한라산 남쪽에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의 배경이 되는 '대정'과 우리나라 근대 미술의 대가 이중섭의 흔적이 남아 있는 서귀포가 있다. 먹을 갈아 베투 3개의 밑바닥을 뚫고, 붓 천 자루를 해지게 했던 추사가 위란치(厓巖安置)되어 있었던 곳에서 느끼는 시간의 궤적은 특별하다. 그림을 그릴 종이마저 없었던 이중섭이 담뱃갑 은박지에 그린 '계' 그림은 먹고사는 문제가 삶의 전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시간의 궤적이다. 제주를 지금도 이렇게 모든 것을 품고 숨 쉬고 있다.

제주는 예로부터 바람이 많은 섬이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바람은 고난을 주는 자연이다. 특히, 바다에 나가 채취하는 수산물 생활의 터전인 어부들에게 바람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이다. 인류는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기 위하여 제사와 제물을 바쳐 왔다. 오늘날 기술은 바람을 이용

해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급자족할 만한 에너지가 없기에 항상 육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곳이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 자립 섬이 되어 가고 있다. 아직은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하기에 육지에서 보내주는 전기에 의존해야지만 언젠가는 제주의 바람과 태양이라는 자연 에너지가 이곳을 새로운 시간으로 안내해 갈 것이다. 지금도 이곳에는 렌터카와 택시 중 많은 차량이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 자동차이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불안정한 교통수단이지만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친환경적 가치가 되고 있다. 이제 제주도는 탄소 제로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저기 보이는 풍력 발전기는 새로운 제주의 불거리가 되었다. 전기차를 타고 제주 바람을 맞으며 제주 일주 도로를 돌아본다. 새로운 에너지 세계이다.



### 전정일의

### 식물과 함께 하는 시간

신구대 원예디자인과 교수·신구대식물원 원장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하늘과 동업한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하고는 합니다. 식물원도 식물을 가꾸는 본질적인 면이 농업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동업'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동업은 아직까지 성공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동업의 결렬'을 선언해야 하나 생각할 정도로 어려워 보입니다. 앞선 데 덮친 격이어서 더 의기소침해 있는 나날입니다.

그래도 긴 장마가 지나고 태풍과 태풍 사이로 맑은 하늘이 하루이틀 보이는 요즘, 한편으로는 물난리가 날까 노심초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맑은 날을 틈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식물원에서 보전하고 있는 멸종위기 식물을 협력하고 있는 기관에 보급하는 일입니다. 학교나 환경생태학습원과 같이 교육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들에 식물을 심어주어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멸종위기 식물이 살 수 있는 '대체식지'를 만들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듯 식물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멸종위기 식물을 보전하는 일입니다. 멸종이란 생존해 있던 종의 개체가 더 이상 세계에서 확인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며, '절멸'이라고도 합니다. 해당 종을 구성하던 마지막 개체가 사망하는 시점을 멸종 시기로 봅니다.

멸종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대량 절멸 또는 대멸종이 다섯 번 있었다고 합니다. 한 생물종의 생물종 75% 이상이 멸종하면 대멸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멸종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2001년 매클리오드는 대멸종의 원인으로 주로 언급되는 사건들과 대멸종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인으로 꼽은 주요 단어들만 보면 화산 폭발, 해수면의 변화, 운석 충돌, 지구 냉각화, 지구 온난화, 무산소증, 해양 황화수소 방출, 지구 근처의 신성 또는 초신성 폭발과 감마선 폭발, 대륙의 이동 즉 판구조론과 멸종의 관계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지금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섯 번째 멸종과 관련하여, 특히 식물이 멸종하는 원인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 멸종위기의 시대

대략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연을 통제하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지를 관리하고, 가치 있는 식물만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산업적 농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림 벌채와 도시화가 결합하여 서식지 손실이라는 식물과 동물이 멸종되는 이유를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온실 효과로 인한 지구 대기 및 해양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입니다. 온도가 1도만 상승해도 식물과 동물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외래종의 유입입니다. 지역 고유의 동물이 아닌 동식물이 생태계에 유입되면 지역 식물과 동물과 경쟁하거나 더 공격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잠재적으로 멸종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과잉 착취입니다. '과다 수확'이라고도 하는데 동물이나 식물 종을 과도하게 수확하여 종이 그 수를 갱신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에서 이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최소한 식물과 관련하여 지금 진행 중인 여섯 번째 대멸종이 앞선 다섯 번의 대멸종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그 멸종의 원인이 대부분 인간

의 활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 식물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을 돌보는 식물원들이 멸종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물 보전 활동에서 풀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립 식물원들이 멸종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지만, 사립임에도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립 식물원들은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급 식물원, 수목원 그리고 생태원 같은 대형 기관들이 설립되고 있어 큰 역할을 하겠지만, 풀뿌리로서 사립 식물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립 식물원들의 멸종'은 풀뿌리의 소실로서 보전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식물 멸종과 식물원 멸종의 공통점은 사람이 초래하였고 사람이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최소한 그 멸종의 속도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많은 영역에서 그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앤 리버스 명언  
"어제는 역사, 내일은 미스터리, 오늘은 신의 선물이다."

미국의 여성 코미디언, 배우, 영화감독 에드가 로젠버그의 아내. 그녀는 거침없이 질문을 던지며 상대를 몰아세우는 스타일로 여성 코미디언 시대를 연 인물로 평가 받는다. "얘기 좀 할까요(Can we talk?)"는 그녀의 대표적인 유행어. 오늘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1933-2014.

☆ 고사성어 / 수도호손산(樹倒猢猻散)  
'나무가 넘어지면 그 나무에서 살던 원숭이들이 흩어진다'는 뜻. 우두머리가 망하면 그 수하들도 덩달아 낭패를 보게 된다는 말. 송(宋)나라 세도가 조영(曹諤)은 간신 진회(秦檜)의 환심을 사 고위 관리가 된 뒤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잘 보려고 했지만, 그의 손위 처남인 여덕신(厲德新)만은 태도가 전과 다름없었다. 진회가 죽고 조영도 좌천되자 그가 '수도호손산'이라는 제목의 부(賦)를 지어 조영에게 보냈다. 진회를 큰 나무, 조영과 같은 무리를 그 나무에 사는 원숭이들에 비유해, 큰 나무가 쓰러져서 원숭이들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으니 나라가 기뻐할 일이라고 했다. 출전 도종의(陶宗儀)가 편찬한 설부(說郛).

☆ 시사상식 / 황금수갑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주요 임직원들에게 높은 급여 혹은 인센티브 등을 지급해 인재 유출을 막는 것을 말한다.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피인수 회사를 그만둘 경우 기업 인수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쓰는 방책이다.

☆ 신조어 / 알부자  
알바(아르바이트)로 부족한 학자금을 채우는 대학생을 일컫는 말.

☆ 유머 / 정치인이란  
남자가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것을 본 국회의원이 왜 그러냐고 묻자 음식 살 돈이 없어 그랬다고 했다. 정치인이 "우리 집으로 가시죠"라며 차에 태웠다. 남자가 연신 고맙다고 하자 그 국회의원이 한 말. "우리 집 잔디가 30cm 정도로 자랐거든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 기자수첩

박미선 유통바이오부/only@



### 의사 파업과 K의료의 위상

면 철화로 맞선다. 양측이 공감하는 국내 의료 현실은 같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높지만, 지방 의료 서비스는 낙후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풀아가는 방법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는 갈등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협약금여 사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을 추진하려 하고, 의료계는 전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의료 수가를 높여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충분한 대화와 토론, 설득으로 견해차를 좁혀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결국 의료계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파

업에 들어갔다.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와 의료계는 각각 "전시 상황서 전장 이탈하는 군인" "기생충보다 못한 정부"라며 서로 헐뜯었고, 결국 의협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나라의 품격을 높였던 K의료 위상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정치권은 무기한 총파업을 앞두고 의료계 요구대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의협은 개원의·전공의·전임의·의대생까지 총망라한 지도부가 단일안으로 협상에 나서기로 해 갈등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가뜰이나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시기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양측이 이해와 양보를 통해 K의료 품격에 걸맞는 의사결정을 내놓길 기대해 본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대표전화 (02)799-2600
자본시장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37	산업부 (02)799-2644	팩스 (02)784-1003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뉴스룸부 (02)799-2664	탐사보도팀 (02)799-264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슈&인물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배우순 디스코 대표

# “부동산 정보, 시세가 전부는 아니죠”

부동산은 한국인에게 가장 큰 자산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민 자산의 4분의 3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부동산 사랑이 유별나거나 거래 단가도 다른 자산보다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밖에 없다. 그 정보들을 따로 모으려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여간 발품이 드는 게 아니다. 배우순(38) 디스코 대표는 이런 수고를 줄이는 데 회사의 목표로 삼고 있다.

### “어떤 부동산 정보든 찾아주자”

회사 이름부터 그런 포부를 담아 지었다. 디스코(disco)는 ‘디스커버리 리얼 이스테이트(discovery real estate)’의 약자.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발견한다는 뜻이다. 배 대표는 “어떤 부동산 정보든 찾아주자”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실거래가 정보 제공에서 시작한 디스코는 현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경매, 부동산 등기, 개발 정보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 여섯 가지는 디스코가 꼽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필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배 대표는 인터뷰 내내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직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알아야 할 정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는 단계라고 본다”며 “부동산을 샀을 때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만 집중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가격이 적정한지, 해당 물건에 경매 같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라며 “가격 추이에만 집중하다 보니 더 필요한 정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그러면서 디스코에 항의하러 찾아왔던 토지주 이야기를 꺼냈다. 이 토지주는 자신의 땅은 분명 도로와 접해 있는데 디스코엔 맹지(盲地·도로와 접한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로 나와 있다며 따졌다. 맹지는 토지시장에서 헐값을 받기 때문이다. 배 대표는 디스코에 나온 토지대장을 보여주며 서류상으로 맹지로 나와 있다며 군청에 정정할 것을 권했다. 토지주는 덕분에 땅이 제값을 받게 됐다며 디스코에 고마워했다.

### 등기 700원 허들 치우면 보이는 정보

올해 초 시작한 부동산등기 무료 발급은 디스코의 히트작이다. 디스코가 미리 등기소에 건당 700원씩 열람 비용을 충전해 놓고 사용자가 요청하면 바로 결제하는 식으로 등기를 무료 제공한다. 한 번 열람한 등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다음 사람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디스코는 등기 100만 건을 확보하고 있다. 그만큼 무료 등기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았다는 뜻이다.

배 대표는 “등기는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정보면서 가장 중요하다. 부동산의 형성 과정부터 유형까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며 “700원이란 허들을 치우면 이용자가 진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다”고 했다.

등기 무료 발급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투자자 사이에서 디스코에 관한 입소문이 본격적으로 퍼졌다. 이후 디스코 이용자는 40만 명까지 늘었다. 다만 이용자 증가는 디스코의 양날의 칼이었다. 등기 열람 비용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이용자가 갑자기 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디스코는 무료 등기 열람 서비스를 잠시 쉬고 있다. 배



배우순 디스코 대표가 경기도 성남 분당구 판교동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디스코(disco)는 ‘디스커버리 리얼 이스테이트(discovery real estate)’의 약자로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발견한다는 뜻이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토지·건축물대장, 경매, 등기... 실거래가 외 다양한 정보 제공 가격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게

등기 무료발급 서비스 대히트 100만건 확보...사후 열람도

비용부담에 일시중단, 곧 재개

주택에 비해 토지·상가·빌딩은 일반인에게 정보 문턱 높아 상업용 부동산 관심 가져볼만

대표는 “조만간 등기 열람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 아파트 두 채면 빌딩·토지도”

배 대표는 원래 감정평가사로 일했다. 외국계 감정평가법인에서 일하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사옥 거대나 용산구 용산역 코레일 정비장 개발 같은 굵직한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자문을 받았다.

다양한 부동산 상품을 접하다 보니 시장이 보였다.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택시장은 많이 투명해졌지만 토지나 상가, 빌딩 등 이른바 상업용 부동산은 정보가 부족한 평범한 사람에겐 여전히 문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배 대표는 “부동산시장이란 곳이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보가 많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열리지 않은 부동산시장이 있다고 생각해서 디스코를 창업했다”고 말했다.

배 대표 생각대로 디스코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모든 부동산 유형을 아우른다. 아파트부터 토지와 상가, 사무실, 숙박시설, 공장, 창고까지 취급한다.

배 대표는 상업용 부동산을 유망하게 평가했다. 아파트값 상승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투자처를 찾으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는 많이 비싸져 있는 상태. 강남 아파트 두 채면 원룸 건물이나 빌딩,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도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에서 이익을 본 사람은 부동산시장 자체는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 ★배우순 대표는

2009년 감정평가사가 된 후 DTZ코리야에서 부동산개발 컨설팅을 맡았다. 2016년 ‘디스코’를 창업한 후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세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있다”며 “다만 그 자금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쪽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배 대표는 공인중개사와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공을 들인다. 그간 상업용 부동산을 취급하는 중개사는 물건을 알리고 싶어도 플랫폼이 마땅찮았기 때문이다. 디스코는 이 빈틈을 노린다. 배 대표는 지난 해부터 공인중개사협회와 각 지역 지회를 찾아다니며 디스코를 알리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에 최근엔 자발적으로 디스코에 중개 물건을 게시하는 중개사들이 늘고 있다.

배 대표는 “기존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는 공인중개사의 사업 파이를 줄이고이들을 시장에서 소외시키는 역할도 한다”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것이 플랫폼이 성장하는데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 “이런 정보까지 제공해?” 할 때까지

디스코는 조만간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디자인을 개편할 예정이다.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배 대표는 “지금까지 플랫폼이라 하면 정보만 확인하고 나가는 데서 멈춰 있다. 플랫폼 안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다”며 개발 방향을 소개했다.

디스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도 여기에 있다.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디스코에서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 대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부동산시장에서 ‘디스코가 이 정도 정보까지 제공하는구나’는 생각을 이용자가 할 때까지 앱 기능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시설

## ‘발등의 불’ 국민연금 개혁, 미루기만 할 건가

국민의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일 내놓은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다. 지금의 인구구조와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질 때의 추산인데, 정부가 2015년 전망했던 적자전환 시기(2044년)보다 3년, 기금고갈(2060년)은 4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으로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지난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는 2040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 기금이 고갈한다고 내다봤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기술발전 등에 대한 생산성 향상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더라도 적자전환을 2043년, 기금 고갈을 2057년으로 겨우 1~2년 늦출 수 있을 뿐이다. 현행 연금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불과 20년 뒤 연금의 지속성이 위협받는다는 얘기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의 흐름을 되돌릴 방법은 사실 없다. 연금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줄어든다. 경제성장률도 갈수록 떨어지면서 재정확충 기반은 약화하고 있다. 당장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제도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

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잠시 추진되는 듯하다가 지금은 기약 없이 표류하는 상태. 보건복지부는 2018년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문 대통령의 퇴짜를 맞았다.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공약과 어긋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 세금을 퍼붓지 않고는 실행의 방법을 찾기 어렵다.

복지부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 과제를 떠넘겼고, 경사노위도 작년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높이는 권고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연금개혁 논의는 멈춰졌다. 정부가 더 이상의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보험료를 더 걷고 혜택을 줄이는 개혁에 대한 여론의 저항이 큰 탓이다.

그럼에도 연금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다급한 과제다. 연금 체계를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면 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과 고통, 연금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지금 코로나19 위기 극복보다 더 급한 과제는 없지만, 연금개혁 또한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정부가 빨리 결단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 법률, 특! 많으나 적으나... 자녀간 상속분쟁

얼마 전 남동생에게만 유산을 줬다고 부모님 집에 불을 지른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남동생에게만 상속해 준 것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 집 전체가 불에 났지만 다행히 어머니가 집에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A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장녀가 아버지에게 한정후견을 신청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자신의 회사 지분을 차남에게 물려줬는데 장녀가 이에 반발하면서 아버지에게 한정후견을 신청한 것이다. 후견 신청은 건강이 좋지 않아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재산을 받지 못한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한 후견신청을 해 부모님이 한 재산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향후 더 이상 재산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를 최근 자주 볼 수 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잘 넘겨줄 수 있을지도 중요한 문제다.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싸우지 않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 모든 자식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면 될까.

아들, 딸 또는 장남, 차남 구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면 비교적 다툼의 소지가 적어질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장남이 부모님 재산 관리나 병간호를 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장남에게 동생들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면 부양에 고생한 장남이 가만히 있을까. 부모님을 부양한 장남은 당연히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기여분을 달라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 부모님을 부양한 장남에게 재산을 더 나눠주면 문제가 없을까. 동생들 입장에서는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부모님을 모셨다고 장남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동생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배려해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어떻게 재산을 나눠주더라도 모든 자녀가 만족할 수 있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힘들다. 대부분 재산을 증여나 유언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두고,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재산을 남겨주지는 않더라도 유류분 반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골고루 나눠주는 게 자녀들 사이에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반론보도】 ‘중기부, 기은·신보 산하기관 이관 추진’ 기사 관련

이투데이가 6월 25일자 1·3면에 보도한 ‘중기부, 기은·신보 산하기관 ‘이관’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 의견을 요청하거나 면담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AMSUNG

# 신혼집 공간에 딱 맞는 삼성 신혼가전과 함께 당신은 **예쁘게만 사세요**



슬림하고 가벼워서  
주방 어느 공간에도 잘 맞는  
**더플레이트**

대형 화면을 가까이에서 봐도  
부담 없는 초고화질  
**QLED 8K**

빌트인도, 따로 설치도 가능해  
신혼 주방에 딱 맞는  
**BESPOKE 식기세척기**

집안 구조에 따라  
위 아래로도, 옆으로도  
설치가 자유로운 **그랑데시**

크기도 공간도 고민 많은 당신의 마음을 잘 아니까

우리의 첫 가전  
**삼성 신혼가전**

이제는 가전을 나답게.